

8. 사단의 공격에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문인선교사를 준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파송전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영적민감성 개발

사단의 강풍에 대하여 단순히 방어하는 자세 외에 전문인선교사들은 개인의 삶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요청받는다. 그러나 만약 팀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민감성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종종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 네팔 성도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가족과 마을로부터 어떻게 추방되었는지를 말하였다. 마침내 한 그리스도인과의 만남을 통해 수도 카트만두로 오게되었고 그곳에서 한 여성 선교사가 그녀를 데리고 들어가서 머물 장소를 제공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이 네팔 여인은 싱긋이 악의 없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하나님의 여종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날 밤 그녀는 마귀들이 사로잡고 있는 곳에 나를 처넣었어요. 그래서 나는 밤새도록 마귀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승리를 안겨 주셨는지를 말했다. 이러한 승리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

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네팔 여인에게는 경건하고 교육받은 서양 선교사가 그 집에 마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선교사가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곳에 처넣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네팔 여인에게는 경건하고 교육받은 서양 선교사가 그 집에 마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귀에게 사로 잡힌 집과 귀신들린 사람은 네팔 여인이 익히 경험했던 것이었지만, 서양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그 선교사가 민감하지 못한 사역의 분야가 있었던 것이다. 영의 세계의 실체를 아는 것과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적용하는 것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경험부족으로 인한 무지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선교사의 능력을 방해했던 것이다.

9. 마귀의 출현에 관한 경험이 없는 전문인선교사들에게 이 부분에서의 민감성을 발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전문인선교사는 자신들의 경험 밖 상황 속의 영적싸움에도 가담토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를 준비하는게 중요하다. 그런 나라에서 사역해 온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다. 사역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읽는 것(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부터 시작하여) 또한 도움이 된다. 게다가 전문인선교사 자신의 문화와 아주 다른 문화와의 접촉은 이전에 상상도 못한 사역의 기회들을 보여 줄 것이다.

한 서구 출신의 전문인선교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었다. 그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비 기독교 출신 배경이었는데, 그 중 몇명이 최근에 믿게 되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사는 기숙사에서 두 학생이 마술에 몰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마술을 걸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는 밤에

방안에 바람이 일고, 커튼이 휘날리며, 마루가 쪼개지는 등의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성경공부 모임에서 말했다. 그리고 몇 명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공산권이었던 헝가리에서 온 두 남학생들은 놀라면서 믿지 않으려 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나이지리아 학생만 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런 일들은 나이지리아에서는 항상 일어났어. 영적 전투가 그곳에선 맹렬하다구」 하며 입을 열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어떻게 마귀에 대항해 싸워야 하는 지를 말했다. 그 나이지리아 형제는 그 그룹에서 배우기 위해 왔지만, 그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그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공부 그룹은 영적 공격을 어떻게 다물지에 대해 함께 배웠다. 전문인선교사는 겸손하게 비록 자신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로 부터 겸손하게, 그리고 기꺼이 배우고자 해야 할 것이다.

10. 영적 전투의 무기는 어떤 것들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의전신갑주

에베소서 6:10-18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꼭 필요한 여러가지 갑주를 묘사하는데, 마치 로마 군인이 싸움에 대비해 갑주로 완벽하게 무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투에 가담하기 위해 완벽하게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세가지 사항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갑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저절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훈련을 통해 「입어야」하는 것이다. 「노력하라,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한다.

두번째,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든 영적 전투에 참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싸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며, 문제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전투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일어날 것이다. 바울은 앓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일어서라고 말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의 불 같은 창살이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입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영적으로 가장 전략적인 무기가

다. 엡 6:18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함으로써 영적 전투의 장을 맺고 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1.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무기인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전문인선교사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만약 다른 상황에서라면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을텐데」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사실 언제나 전문인선교사들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다. 전문인선교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의 우선적인 무기인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

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계신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써 이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 스스로 기도하는 것 외에도 전문인선교사는 다른 신자들과 기도제목을 나누는 기회들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을 대단히 전략적인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권고하기도 한다.

요약

전문인선교사는 일을 하면서 무력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 무력감은 특히 어떤 팀에 속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큰 비전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없는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될 수 있다. 팀으로 일한다는 것은 자신보다는 훨씬 더 큰 어떤 조직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갖는 데 중요한 것이다. 팀 구성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선교지에서 책임구조를 가질 수 있다.

전문인선교사는 영적 전투를 치루는 그리스도 군사들 가운데 최전방에 있는 군사로 간주된다.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러한 관계들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며 선교 팀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공격 받기 쉬운 분야에서 전문인선교사들은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 전문인선교사는 사단의 전술을 궤방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선교사들은 적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되어야 한다.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영역에 노출될 수도 있다. 사단과 그 마귀들의 영향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단의 활동이 다른 곳보다 분명히 나타나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기도 한다. 전문인선교사는 좀더 경험있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영적 전투에 관해 배우려 해야 한다. 그들의 온 마음과 생각으로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가장 전략적인 선교의 무기인 기도를 활용해야 한다.

연구 및 활동 과제

1.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전문인선교사로 다른 사람들과 팀으로 사역해보는 방안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일하거나, 당신의 목표 지역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자. 이들과 관련을 맺기 위해 기도하라.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그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라.

2. 어떻게 갈등을 다루겠는가? 당신은 갈등을 인식하고 빨리 다루는가? 갈등을 알아내고 빨리 대처하는가, 아니면 회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가? 공적으로는 이견이 있는 것을 감추면서 사적으로는 분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미워하지는 않는가? 갈등을 다루는 것은 전적으로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태도와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침을 말한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마 5:21-24과 마 18:15-17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나온다. 이 구절에 대해 묵상하고 당신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적어보라. 만일 당신이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 토의하고 다른 팀 동료들과 행동강령을 작성해 보라. 그런 다음 당신이 설정한 원칙들을 실행하도록 하라.

3. 엠 6장에는 우리가 확고히 서기 위해 입어야 할 하나님의 감주에 관한 친숙한 단락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방어적인 것만은 아니다. 바울은 고후 10:4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한다. 기도와 금식, 예수님의 능력있는 이름을 사용함과 성령의 검을 정확히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공격적으로 된다. 우리는 이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작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이 부분에서 숙련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귀의 세력들을 다룬 성경의 예들을 연구하라. 책이나 세미나 또는 영적 전투에 경험이 있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배우라. 이 분야에서 민감성과 전투 능력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라.

제 10 장

선교지 문화 이해

한 젊은 미국인 복음전도자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를 위해 여러 번의 모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는 통역을 통해 기대에 차서 열정적으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원하는 분은 손을 들고 하자 놀랍게도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여러 도시를 돌 때마다 이 전도자는 똑같은 반응을 얻었다. 이 놀라운 성과에 힘입어 이러한 커다란 수확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을 순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순회 설교를 하느라 엄청난 수고와 경비를 치른 뒤에야, 그는 일본인들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의 초청에 대한 예의로서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타문화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해나가는 데는 선교지문화(host culture)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낯선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 문화를 배우는 것은 그 지역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화인류학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류학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문화의 요소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문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골드스미스는 문화의 의미를 약술한 후 선교 대상 지역의 사람들을 더 잘 알기 위해 유용한 정보가 어떤 것들인가를 제시한다.

문화에 대한 이해

엘리자베스 골드스미스¹⁾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은 어땠어요?」 새로 도착한 사역자 중 한 명에게 남편이 물었다. 천정에서는 선풍기가 싱가폴의 열대 무더위를 몰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돌고있는 가운데 남편과 버나드는 점심을 같이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가 좋은 학생들이죠.」 버나드의 대답이었다. 「놀랍게도 모두가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영어에도 능통합니다.」 그리고는 약간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그런데 그들이 무얼 공부하고 싶어하는지 반응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들이 이전에 무엇을 배웠는지 몰랐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 질문을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려들지 않았어요. 거듭 얘기했지만 허사였어요. 나중에는 그들을 격려하는 뜻으로 제안 사항을 써서 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먼저 말로써 의사를 표현해 주기를 바랐어요.」

1) 엘리자베스 골드스미스(Elizabeth Goldsmith)는 런던 교외에 있는 올네이션스기독교대학(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의 강사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사역하기를 원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갖고 있다면,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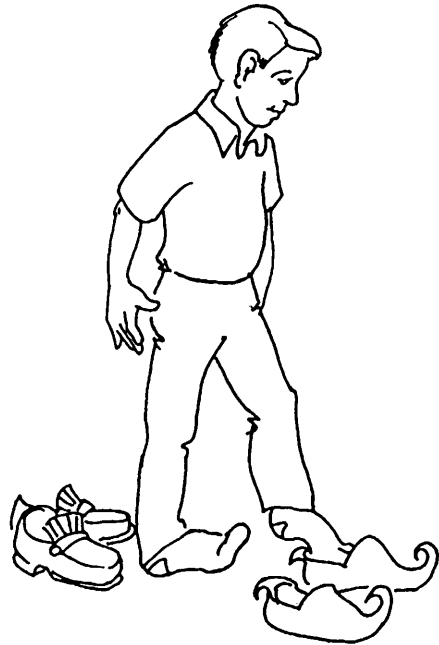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군요.」 마틴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선생님인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한 거죠. 아시아 문화권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싶다면 거듭 묻고 또 정말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선생님이 교과 과정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때, 그것은 썩기를 막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당신이 이미 당신 생각대로 결정을 내려놓고서 단지 예의상 물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버나드의 말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다. 남편과 나는 아시아에 처음 와서 자주 비슷한 실수들을 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방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실제로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는 한 다른 문화권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사물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다.

수년 전에 싱가포르에 온지 얼마 안되는 어떤 사람이 말레이 시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그곳 말을 배운지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할 정도는 못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말레이 문화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 문화에서는 오른손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왼손은 용변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충고를 그리 중요한 것으로 생각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나갔을 때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왼손으로 나누어주지 않고 오른손으로 전도지를 돌렸다. 그러자 위엄있게 생긴 한 말레이인이 늪늪한 태도로 다가오더니만 완벽한 영어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야 뭔가를 좀 배우셨나 보군요.」 그리고는 당

당한 걸음으로 가버렸다. 그제서야 이 그리스도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선한 동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전도지는 나쁘고 지저분한 것이요」라고 말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사역하기를 원하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진정 갖고 있다면,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동적으로 이해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버나드가 그곳 문화를 알았더라면 더 효과적이었으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적모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 한 문화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시각과 행동 양식은 우리의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분은 초월적 세계의 깨끗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산소 마스크가 달린 천상의 우주복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이 세상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아 왜곡되지 않도록 해주는 헤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듣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표현이 되도록 하려면 그가 보내심을 받은 문화의 모든 다양한 면들을 취해야 함을 아셨다.

폰 같은 것을 갖고 오시지도 않았다. 사람들과의 효율적인 관계를 위하여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

아니라 1세기의 유대 문화 속에 완전히 동화된 모습으로 오셨다. 의복과 외양, 행동에 있어 그 땅의 사람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 그는 가르치실 때에도 그 당시 랍비들과 같이, 구어체인 학가다(haggada)양식과 더불어 좀 더 실제적이고 법률적인 할라카(halacha)양식을 사용하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논쟁 방식을 잘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만일 그가 손을 놓으시면 전 우주가 무너져내리지 않겠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듣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표현이 되도록 하려면 그가 보내심을 받은 문화의 모든 다양한 면들을 취해야 함을 아셨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전도 여행 기사에서 사도바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두 도시는 흥미롭게도, 그가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해보려 했던 곳이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신들로 오인받았으며(행 14:8-13), 아덴의 헬라인들은 바울이 예수와 그 몸의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했다.(행 17:18) 바울은 자신이 명확하게 말했다고

2.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사역하시던 유대문화에 동화되었는가?

문화의 의미

그러면 문화란 무엇이며,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한 사회의 문화란 그 사회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사물을 보는 그들 나름의 방식, 그들이 따르는 관습들, 그들의 행동 배후에 있는 가치와 생각들을 가리킨다. 로잔(Lausanne Working Group)이 내린 정의는 문화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문화는 다음 요소들의 통합적인 체계이다.:

- 신념(하나님, 실체 등에 대한)
- 관습(행동방식,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 말하는 법, 기도하는 법, 웃이는 법 등)
- 가치들(진리, 선 등)
- 이러한 신앙과 가치, 관습을 표현하는 제도들

이러한 것들은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며, 사회에 일체감과 위엄, 안정감, 지속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해보도록 하자.

신념(beliefs)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은 그들의 삶의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서구의 문화는 수세기 동안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체 이외의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에 전통적인 힌두교 사상은 브라마라고 불리는 지고의 실체만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 외의 것은 모두가 환상으로 마야라고 부른다. 따라서 아주 종교적인 인도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오랜 시간을 보낸다. 반면에 활동적인 서구인들은 탐험하고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며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을 더해주는 기술과 발명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와 유사하게 윤회를 당연시하는 힌두교인은 「당신 거듭났습니까?」라는 질문을 서구인과는 달리 이해하여, 「누구나 다시 태어나죠. 그것도 수백번씩이나요!」라고 대답하고 오히려, 「나는 이 출생과 재출생의 끊임없는

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소! 당신, 내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제시해줄 수 있겠소?」라고 물어올 것이다.

몇 해 전 태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온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 때 파견 대표 중의 한 명이 머리를 밀고 샤프론 겹옷을 입은 승려들을 처음 보고는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 그는 화려하게 장식된 사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춰서서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소리쳤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사실 이 외침은 우리 믿음의 본질이며, 첫 수세기 동안에는 이 외침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한 헌신을 입증하는 시금석이었다. 그렇지만 사원으로 들어가던 불교 승려들은 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누구나 다시 태어나죠. 그것도 수백번씩이나요!」 힌두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먼저, 태국인들은 낮은 소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소리친다는 것은 아주 무례한 일로 간주된다. 그 불교 승려들은 왜 이 외국인이 예의없이 구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영어를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게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가 한 말을 알아들었다더라면 그들은 아주 불쾌해했을 것이다. 불교도들은 붓다를 향해 「주님(lord)」이란 칭호를 쓴다: 그 외국인이 진정 예수를 붓다와 동등한 위치에 놓았던 말인가? 도대체 이 예수란 누구인가? 그들은 알지 못한다. 붓다는 모든 존재가 환영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는 붓다와 동등할 수가 없다. 붓다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외국인이 「예수는 ... 이시다」라고 주장한 것을 보건대 예수는 붓다처럼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태국의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무지로 이 다른 문화권에서 완전히 잘못된 의사 전달을 시도한 실례를 보았다.

3. 「예수는 주님이시다」란 표현이 불교승에게 모순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주어진 사례로 볼 때 불교도에게 그리스도의 주님되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가치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해해갈수록 그들의 기본적인 가치가 우리들과는 매우 다름을 알게될 것이다. 그 차이점은 조그만 것, 예를 들면 무엇을 아름답다고 여기는가 하는 것 등에서도 드러날 것이다. 많은 아프리카 남성들은 결혼 상대자로 건강한 여인을 선호한다. 건강한 여인은 들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풍만한 육체를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서구에서는 흔히 날씬한 몸매를 좋아한다.

한번은 북부 수마트라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활동적인 교회 장로님 한 분에게 기독교의 어떤 점이 그를 끌었는지 묻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똥똥했는데 나도 것처럼 똥똥해지고 또 만족감을 갖고 싶었지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

가치에 대한 또다른 예로서, 우리가 사역했던 부족은 「큰 죄(major sins)」와 「작은 죄(minor sins)」에 대해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자라난 사회에서는 물리적 폭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반면에 약간의 뒷말, 특히 「이러이러한 점을 두고 특별히 기도해주어야 합니다」라는 전제 하에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바탁사람들(Bataks)은 은밀하다거나 속이는 것, 남의 등 뒤에서 하는 행동은 혐오하면서 주먹질은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나의 남편이 수마트라에서 첫 주말을 보낼 때 한 교회의 대예배 시간에 다른 두 목사가 설교 강단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 싸움이 청중들에게까지 번져가서 급기야는 경찰을 부르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날 한 목사가 억지로 교회에 남게 되고 다른 한 명은 쫓겨난 연후에 뒤이은 설교를 통해 여러 명이 개종했다는 사실이다. 「큰 죄」와 「작은 죄」에 대한 우리식의 사고는 아마도 그릇된 것이고 때로 성령께서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 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

4. 전문인선교사들이 소유한 가치가 성경적 진리와 대치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습

조금만 민감하다면 새로운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여러 관습이 자기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쉬운 예로서 인사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당신은 절을 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굽혀야 하는가? 절하는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는가? 혹은 악수를 한다면 남녀 모두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악수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꼭 쥐는지 혹은 살짝 건드리기만 하는지? 또 악수할 때 다른 손은 어떻게 하는가? 열렬하게 껴안는 것, 혹은 러시아에서는 남자들 간에도 하듯이 심지어 입술에다 키스하는 것도 하나의 풍습인가? 이렇게 열거해간다면 끝이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예절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비취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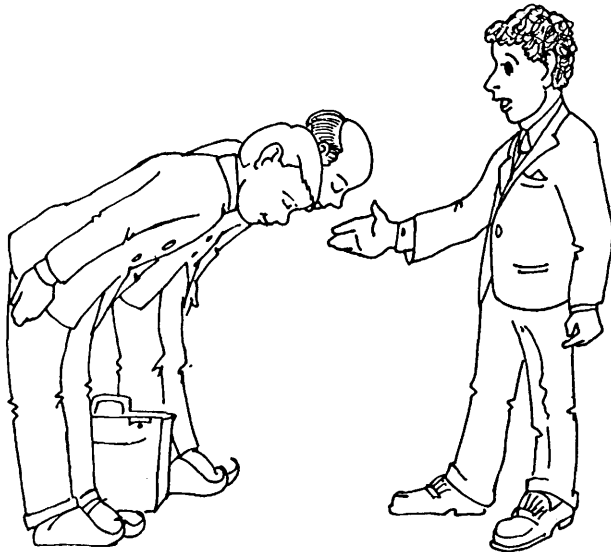
그곳 사람들의 관습에 맞게 행동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설득력이 더 강화된다. 언젠가 한 중국 농부는 나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환자로 선교사 병원에 찾아갔을 때 담당의사이셨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공손하게 인사했던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대부분의 문화가 나름대로 점잖은 옷차림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 어떤 민족들은 미니스커트에 거부감을

갖고, 여자가 무릎 이상을 내보이는 것은 성적으로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여긴다. 홍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여자들이 뺨뺨하고 높은 칼라를 한 것을 보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여성들이 쇄골을 드러내는 것을 짐작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스커트는 허벅지까지 보이게 만드는 것을 보고 당황하기도 했다. 그들의 예의범절에 대한 관념은 내가 자라왔던 문화에서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 분명했다.

그곳 사람들의 관습에 맞게 행동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설득력이 강화된다.

15년 뒤에 북부 수마트라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을 때 나는 머리를 길러야 했다. 거기서는 여성들에게 짧은 머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소녀들은 긴머리를 늘어뜨리고 다녔는데, 허리 아래로 내려온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결혼한 여성들은 머리를 올려서 끝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다녀야 했다. 다행히도 나의 짧은 머리가 금세 길어져서 그곳에 도착할 즈음에는 간신히 핀으로 끝을 울릴 정도가 되었다. 우리보다 뒤늦게 온 한 독일부인은 머리를 기르려 하지 않았다. 그당시 독일에서는 긴머리를 아주 종교적이고 구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 그 곳 교회의 책임자가 우리 선교사 네 명과 몇몇 교회지도자들을 초대했던 점심식사에서 매우 당황스런 일이 생겼다. 주인은 과거에 한 선교사의 부인이 머리를 짧게 하고 있었던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를 우

리 모두에게 엄숙한 어조로 얘기했다! 그런데도 그 독일 부인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 문제를 단지 자신의 관점에서 밖에 보지 못했으며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야 말았다.

5. 관습을 무시할 때 전문인선교사의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때때로 우리는 그 곳의 사회 관습이 너무 억압적이라고 느낀다. 사실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외국인이어서 다른 관습을 따르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태도를 바꾸면 정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들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해요.」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의 문화가 더 우월하니까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고수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자만심에서 나온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식이 최고예요. 당신네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 문화가 가장 좋은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각 문화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 각 문화는 각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한다. 언젠가 영국 소재 일본 회사에서 수년간 일하고 있던 친구와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그는 일본인들이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일본인들

어느 한 문화가 가장 좋은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각 문화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 각 문화는 각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한다.

은 전체적인 일을 구상할 때 각 개인의 세세한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적인 틀을 맞춰가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았다. 내 친구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전략을 세운 후에 세부적인 일로 옮겨가는 식의 구상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긴 계산서에서 두 숫자를 바꿔 쓴 것 때문에 거의 해고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 일에서 매번 실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런 일들은 자질구레하다는 느낌을 버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일본인 상관은 「당신이 세부적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체 일을 맡길 수 있겠소?」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한 문제를 두고 완전히 다른 두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옳거나 그름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6. 문화적 관점이란 잘못된 것일 수 있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화적인 관습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제도들

모든 문화의 기저에 흐르는 차이점들 때문에 제도라든지 일하는 방식도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역을 하려면 그 문화의 의사소통방식, 즉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 누구의 의견을 물어야 할지, 상황에 따라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효과적이고 원활한 사역을 하려면 그 문화의 의사소통방식, 즉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 누구의 의견을 물어야 할지, 상황에 따라 누가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 과정도 당신이 익숙해 있는 방식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때로는 「사업」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가족의 건강에 대해 예의를 갖추어서 오래 동안 물어야 할지 모른다. 어떤 사회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장시간 동안 상세한 토론을 거친 후에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한다. (북부 수마트라에서,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지루한 논쟁을 위해 몇 시간 동안 인내심 있게 앉아 있어야 했다.) 어떤 사회에서는 권위주의적 질서 속에서 일을 진행한다. 권위의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할 일을 말할 수 있다. 흔히 이 위계질서는 나이와 연관이 있어서 나이 어린 사람은 항상 복종하여야 한다. 지난 여름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일했던 영국의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의 교장이 우리보다 나이가 적다는 것

을 우연히 이야기하게 된 적이 있다. 이 친구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뭐가 잘못되었나요?」라고 우리가 물었다. 「당신네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의 대답이었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을 교장으로 선출할 수는 없어요.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은 사임을 종용받게 될 거요」

사역지에서는 또한 가족과 친척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요구와 의무를 수반하는 대가족제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제일 명석한 아이를 의사나 법관으로 키우기 위해 전가족이 학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졸업하여 봉급을 받게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전부를 다 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돈은 대가족 모두의 유익을 위해 써야 한다.

카로바탁(Karo-Batak)지방에서 버스를 타게될 때, 서로 초면인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자주 우리의 흥미를 끈다. 그들은 서로 고향과 친척들의 이름을 물어본 뒤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서 마침내 그들들 사이에 어떤 유대가 있는지를 찾아낸다. 그리고나면 한 사람은 칼림부부(손윗사람)가 되고 다른 사람은 아낙 베루(손아랫사람)인 관계가 성립된다. 칼림부부는 아낙베루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물건을 빌리거나 그의 집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도 흔히 이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마을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한다. 즉, 그 마을에 아낙베루들이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집을 모임 장소로 제공해준다.

7. 전문인선교사가 사역지 문화의 제도와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어떻게 문화가 한 사회에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로잔의 보고서가 「문화는 ...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며, 사회에 일체감과 위엄, 안정감, 지속성을 부여한다.」라는 진술로 끝난 이유를 알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를 알 때, 외부에서 새로 온 사람도 그 사회에 쉽게 익숙해지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며, 어느 정도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시간을 투자하여 그 문화를 배우려하지 않을 때, 당황스런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

문화는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며, 사회에 일체감과 위엄, 안정감, 지속성을 부여한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알게 된 한 기독 평화봉사단(Peace Corps)은 지역교회의 어떤 모임에서도 그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지않아 당황하였다. 그는 꼬박꼬

박 예배에 참석했고 아낌없이 베풀었으며 기도 모임에도 참석해왔다. 나의 남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루는 어찌된 연유인지를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얘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혼계조로 얘기했다.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걸요.」 남편이 반박했다.

「수업시간에 결코 하나님을 언급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과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과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렇다면 왜 그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평화봉사단원은 자신의 서구 세계관을 수업시간에도 그대로 도입하여 삶을 「종교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분리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성경에서도 그런 분리는 찾아볼 수 없다.

8. 선교지 문화의 세계관을 이해할 때, 전문인선교사가 좀더 정확한 성경적 관점을 갖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다른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가? 새로운 나라로 떠나기 전에 어디에서 조연과 통찰력을 구할 수 있는가?

선교단체들

세계의 대부분 나라에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서 많은 선교단체들은 그들을 통하여 그 지역 상

황을 이미 조사해 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아낸 것들은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나 잡지뿐 아니라 읽기 쉽고 짧은 팜플렛으로 준비되어 있다. 당신이 가고자하는 새로운 지역에서 일해온 선교단체를 알아내어 조연을 구하라. 국내에서는 한국선교핸드북이나 아래 주소의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를 통해 선교단체 명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KRIM)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667호
 전화(02)569-0716, 557-2088/팩스(02)563-6950

선교잡지를 구독함으로써 그 민족과 그들의 관습, 역사,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관한 축적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국가에서 이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편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의문에 답해줄 것이다.

선교지로 떠나기에 앞서, 현지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현지 교회 교인과 협력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선교지로 떠나기에 앞서, 현지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현지 교회 교인과 협력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나라에서 당신은 손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생각이나 논쟁거리가 되는 신학적 주장, 일하는 방식 같은 것을 강요하려 해서는 안된다.

9. 전문인선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선교단체들이 어떤 지역이나 국가 혹은 민족에 관해 최상의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사관

흔히 대사관은 다른 나라에 자국의 문화적 유산을 알리는데 열성적이다. 대사관을 방문하거나 편지를 띄우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책자나 인쇄물들을 자국인이 만들었을 것이므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감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공공 도서관도 사역국에 관해 알아볼 것이 있을 때 가 볼 만한 곳이다. 관심있는 주제들의 목록을 사서에게 알려주면 차례로 훑어본 뒤 가져갈 만한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National Geographic과 같이 가치있는 정기 간행물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라.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로는 사역국의 지리, 역사, 경제와 인종적 기질, 그들이 신봉하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 정치 구조와 축제, 결혼 풍습 같은 문화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책도 있다. 원주민 작가가 쓴 소설을 읽어볼 수 있다면 그들의 눈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어서 재미있을 것이다.

국내체류자들

당신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거나 혹은 방문 중인 사역 대상지의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해보았는가? 인근의 대학이나 언어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공단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날 수가 있다. 방문하거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종족집단이 이웃에 있는지를 찾아보라. 흔히 그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당신이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 대도시에는 그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한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아직은 그들의 말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당신이 참석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화를 넘어선 우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신네 나라에 와있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네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란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본토에서 그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과 꼭같지는 않을 것이다.

대중매체

신문이나 잡지에 당신의 사역 대상국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지를 잘 살피라. 그 기사들을 나중에 참고할 수 있

도록 스크랩하라. 때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무진장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TV 다큐멘터리 역시 그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커다란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10. 당신이 처해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종족들과 그들이 사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자료제 공처는 어디일까? 또 어떻게 자료들을 모을 수 있겠는가?

요약하자면, 겸손한 자세와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를 갖고 선교지로 가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예기치 않았거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

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신대로 해야 한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우라.

요약

사역의 효율성은 사역지의 문화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이해가 없을 때 전문인선교사는 자신이 바라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 오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전문인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원하는 마음을 진정 갖고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한다. 선교지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들과 일체감을 갖게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시도에 있어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다.

문화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신념은 사람들이 실체를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한다. 가치는 삶의 모든 면, 특히 사건과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관습은 한 문화의 외적인 규약으로서, 인사법, 음식, 복장을 포함하여 사회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한 정형을 제공한다. 제도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종교, 정치, 사업, 친족관계와 다른 관계들과 같은 기능적인 활동들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특정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이들에게 정체성과 자존심, 안정감, 지속성을 가져다준다.

다른 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은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입수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선교단체들은 특정 집단에 관한

정보 제공에 도움을 줄 것이며, 그 집단의 복음화에 대해서도 순수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사관들은 흔히 자신의 민족과 문화에 대해 알리려고 열심이다. 공공 도서관 또한 고려할만한 곳으로 소장 도서의 종류와 도서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책이나 정기간행물, 기타 매체들의 목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의 본국에 거주하는 사역 대상국의 국민들도 유익한 정보의 원천이 된다. 그들과 문화권을 넘어서는 우정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TV 같은 대중매체 또한 대상국에 대한 현재의 소식들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 사역지 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및 활동 과제

1. 타문화를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의 문화에 관해 완벽한 보고서를 쓰기가 힘들다면 다음의 주제 개요와 제안한 질문들을 기초로하여 한두 페이지 정도의 글을 쓰라.
 - 관습들. 자신의 문화에서 남에게 인사할 때 쓰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활동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옷입는 규범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언제 또 얼마나 자주 먹는가?
 - 가치들. 자신의 문화에서는 친족 관계, 효율성, 청결함, 이동, 교육, 기타 일상 생활의 여러 면에 어떠한 가치를 두는가?
 - 신념들. 자신의 문화에서는 실재, 영원성,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제도들. 제도들(종교, 정치, 교육, 사회)이 자신의 습관, 사고방식, 행동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2. 당신이 전문인선교사로 섬기려고 하는 지역을 정했는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혹은 임의의 한 집단을 골라 1번의 질문에서 자신의 문화를 설명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라. 그리고 나서 그 문화의 일반적인 각 영역들을 자신의 문화와 대조, 비교해보라. 자신이 생각한 것을 타문화권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토론하라.

제 11 장

스트레스 극복

전문인선교사는 세속 일과 타문화권 적응, 사역, 팀 내에서의 상호 관계, 영적 전투를 역동적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한 한 전문인선교사 부부의 실화를 통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과중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혹자는 이 예가 너무 극단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예는 전문인선교사들이 타문화권에서 사역할 때 직면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주어진 것이다. 또한 11장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타문화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런 것인지를 느끼고, 선불리 덤비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 카를로스 칼데론은 이 사례 연구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식견을 피력하고 있다.

타문화권과의 싸움

카를로스 칼데론¹⁾

남미 출신의 전문인선교사인 호세 루비오(Jose Rubio)는 공학 분야에 세 개의 학위를 가졌고, 모슬렘을 향한 확고한 소명 의식이 있으며, 든든한 기도의 후원에 다 안정적이고 넉넉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확보된 가운데 두 지역교회(남미에 있는 한 교회와 미국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같은 소명을 가진 네 명의 젊

은이로 구성된 팀을 이끌게 되었다. 호세는 자신이 전문인선교사이자 팀리더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자신이 있었다. 그는 모슬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다.

호세는 학교 시절에 성적이 좋았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다. 어려움이나 제약이란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라기보다 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를 가르쳤던 교수 한 분은 그에 대해 「호세군은 상식이 풍부합니다.」라고 평했다. 선교지로 떠나기 직전에 받았던 심리 테스트에서는 「인내심이 그의 주된 특징」이라는 마지막 결과가 나왔다.

1) 카를로스 칼데론(Carlos Calderon)은 파트너스 인터내셔널(Partners International)의 중동 대표로 일하고 있다. 그는 남미인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데 활발하게 일해 오고 있으며, 중동에서 전문인선교사로 살면서 사역해오고 있다.

그의 아내 마리아는 여러모로 볼 때 남편과 어울리는 여성이었다. 대학 수준의 학위를 네 개나 가진데다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놀림이 있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갖지 못함으로 고립감이 가중되었다.

마침내 떠나야 할 날이 되었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그들이 중동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마중나오기로 된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이러한 불편 때문에 그리 낙심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호텔에서 며칠 간 머물렀다. 진짜 스트레스는 6주 가량 지나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친구들, 풍물, 새로운 맛과 냄새로 인한 들뜬 기분이 가시고 실제적인 일상 생활에 부딪히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앞으로 그들 부부의 고향이 될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도시에서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놀림이 있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갖지 못함으로 고립감이 가중되었다. 호세 부부는 주님과 개인의 관계를 더 깊게 함으로 이러한 결핍을 메꾸려고 했다.

그러던 중에 직장 일이 또 다른 실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본국에 있는 회사에서 생산품을 내다 팔 시장개척을 위해 지사 사무실을 열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어서 호세는 이 분야에 자질있는 사람이 이 도시에서 자기 혼자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 역시 이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했다. 그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접촉점을 마련해줄 이상적인 직장 일을 각박하고 전문적이며 막강한 재력이 동원된 경쟁의 장에서 수행해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호세는 사업을 해나가는 것 외에도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제자들을 양육하

기 위해 언어도 배워야 했다. 또한,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이었으며, 열정으로 가득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 개척팀」의 지도자 역할도 해야 했다. 그리고 고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사역의 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보고를 해야 했다. 가족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했고 집을 찾아오는 상냥한 이웃들(그들이 진정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이 모든 책임과 아울러 모교회에서 교인들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관광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어야 했다.



1. 루비오 부부에게 주어진 일들을 평가해 보라. 어떤 일들이 있는가? 누가 이 일들을 주었는가? 이 일들은 현실적인가?

타문화에서받는 스트레스

전문인선교사들만이 타문화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각지의 대학 졸업자들은 외국에 나가서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헌신이 되었고, 효율적인 훈련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들에게 맡겨진 일은 꼭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직업은 일반적으로 괜찮은 봉급과 의료 보험, 유급 휴가, 주거에 대한 자상한 배려, 기타 유리한 조건들로 보상을 받는다.

다국적 회사들은, 단기로 방문하는 회사원들은 호스텔 호텔에 머물게 하고, 장기간 일하는 경우에는 건축 구조나 식 습관, 의복에 있어 본국의 환경과 비슷한 거주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전문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어떤 전문적인 업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삶을 나누는 것,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외부 사람들에게 가정 개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반면에 전문인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다

(고후 2:14-16).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삶을 나누는 것,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외부 사람들에게 가정 개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일은 자신의 문화 속에서조차 심한 스트레스를 가져다준다.

2. 사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일반 전문인과 전문인선교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중되는 스트레스

관계 면에서 볼 때 전문인선교사들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갖고 일하게 된다. 초기에는 언어적인 제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원인을 좀더 깊이 분석하면, 삶에 대한 시각이나 일을 하는 방식, 문제 해결방식, 편지 쓰거나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서 스트레스가 온다. 한 마디로 스트레스는 새로운 환경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한 마디로 스트레스는 새로운 환경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고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선교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사들 또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는 배가된다. 새로운 문화의 상황에서 남녀유별이 강조되어 남편과 아내가 의견상 말씨조차 달라야 할 경우, 스트레스는 깊이 침투하게 된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역시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3. 관계 면에서 전문인선교사가 「가중되는」 스트레스 요인 아래서 일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장의 스트레스

수개월을 지내면서 호세(Jose)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환태평양 지역에서 온 다국적 기업들은 고의적으로 호세가 참여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호세가 손해를 볼 것임에 틀림없었다. 본사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사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회사는 계속되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보아 넘기려 하지 않았다. 호세가 쏟아부었던 많은 시간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모든 면에 있어서 무가치한 투자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라 할 만한 것이 있었다. 그 현지 회사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설립되었으므로 호세와 마리아는 다음 해까지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었

다. 경찰이 그들 부부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출두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 호세는 사업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 그 땅의 모슬렘을 향해 품었던 그들의 열정과 비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업 상 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므로 호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선교사 가정은 자신들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받는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내국인들은 「요즘은 꽤 오래 동안 집에 계시는군요。」라고 말을 걸었고, 호세는 「예, 집에서 일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왜 자신이 직업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가 아니라 「신분을 숨긴」 선교사가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4. 직장인으로서의 활동력을 잃으므로 호세가 경험했던 스트레스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

가정의 스트레스

그 즈음에는 호세의 온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여유」시간이 더 생긴다는 것은 돈을 더 필요로 하는 「사역」 분야가 더 많아짐을 의미했다. 모든 실질적인 목적에 있어 호세의 공적인 직업은 이제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당신 어떻게 돈을 벌지요?」같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상황을 완전하게 설명하기란 불가능했고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거주 허가를 갱신하기 위해 매년 경찰서에 갈 때마다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

호세의 가족은 또 다른 문제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들의 집에서 현지 사람들을 끊임없이 접대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데 특히 방문객의 사회적 인 시간 개념이 다른 것이 힘들었다.

어느날 저녁이었다. 여덟시 반에 마리아가 아이를 재우려할 바로 그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다.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하고 전화 속의 목소리가 물었다. 「저... 지금은 아이를 재우고 있는 중입니다만,」이라고 호세가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제 어머니도 함께 가실 거예요. 아버지 차로 갈 거니까 30분 후면 도착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딸을 재우려고 애썼고, 호세는 끓일 물을 올려놓고 과자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았다.(그 지역 문화에서는 항상 손님에게 다과를 대접해야 했다.) 두 시간 쯤 지나서 방문객들이 도착했다. 그때가 열시 반이었다. 과자를 내

항상 무언가 먹을 것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몇 차례씩 대접하고 나자 이들 부부의 생활비는 바닥나 버렸다.

오고 차를 따랐다. 호세는 두 시까지 졸음을 참아가며 깨어 있기가 힘들었고 마리아는 차의 향기에 질렸다.

항상 무언가 먹을 것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몇 차례씩 대접하고 나자 이들 부부의 생활비는 바닥나 버렸다. 그렇지만 대접하는 것이 그곳의 문화였기 때문에 루비오 부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호세와 마리아는 그곳의 음식에는 적응할 수 있었지만 「상이한」 사회적 생활시간표에 적응하는 일은 또다른 문제였다!

또한 루비오 부부는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주목의 대상이었다. 이웃 사람 들이 그들의 집에서 만나서는 친구가 되었는데, 호세와 마리아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같은 건물에 살면서도 서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의아해 했다. 그러나 어느날엔가 상황이 일변했다. 두 이웃 중 한 여인이 자신의 새 「친구」에게 인사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술궂은 눈초리를 보내었고 이로써 그들의 관계는 끝나버린 것이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선물을 주거나 그녀와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하면서 서로 그녀의 관심을 끌려고 싸우기 시작했다. 이 상황으로 마리아가 곤란한 입장에 빠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5.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맺어 나가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활 양식의 차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 달이 지났다. 치솟는 물가는 루비오 부부의 생활비를 거덜나게 했다. 그들이 맺고 있던 유대 관계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의 사역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 년이 걸릴 것이고 상당한 언어습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두 번째 아이를 가졌다. 이들 부부는 마리아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녀를 돌보아준 의사에게 진찰 예약을 하고 다시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세탁기와 건조기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의 사역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수 년이 걸릴 것이고 상당한 언어습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부는 중고 「반자동」세탁기는 구입할 수 있었지만 건조기를 들일 여유까지는 되지 않았다. 적어도 임신 중 한 여름을 지나는 것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호세와 마리아는 추운 겨울 밤에도 어느 정도 난방 시설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석탄 난로에서 나는 석탄 냄새도 추위에 떠는 것에 비하면야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생활비의 부족, 끊임없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접대하는 일, 사업 상의 경쟁, 의심을 받는 일, 자녀의 출산, 대기 오염, 관계 진전이 느린 것, 고국의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계속 긍정적인 보고만을 기다리는 점, 언어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켰

다. 집에서 아무일도 않고 빈둥거리는 것이 호세에게는 도피처 역할을 했다. 이 귀중한 시간은 팀 멤버 중의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당혹스런 일을 의논하러 찾아올 때면 깨어지곤 했다. 그러한 상황은 대개 성경 말씀을 읽게 만들었고, 또 기도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호세 자신이 이렇게 유동적이고 혼란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상담자기 되기는 힘들었다.

아이들을 그 나라에서 키움으로써 아이들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해 호세와 마리아는 매우 걱정이 되었다. 타문화 속에서 사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끌고갈지 염려가 되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이 문화권에서 공부하게 되면 두 가지 언어를 말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언어를 배울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문화의 실상을 이해하게 되어 다른 문화와의 연관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영적인 사역과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성장함으로써 호세와 마리아가 바라는대로 강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이들이 결혼하여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경우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는데 주의하여 이 복합적인 타문화권에서의 생활에서 개인적, 가족적, 문화적으로 안정된 정체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다중 문화권에서 아이들을 키움으로 얻는 유익은 단일 문화권에서 얻는 이점을 능가한다. 아이들에게 불리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남이 아닌 자기 아이들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6. 전문인선교사가 다른 문화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주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스트레스의 극복

전문인선교사의 사역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은 타문화 경험을 단순히 근근히 생존하는 정도로 축소할 수 있다. 개인적, 가족적, 직업적으로 생겨나는 강한 스트레스는 전문인선교사의 소명감과 목적, 성취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가 전문인선교사를 넘어뜨리기 전에 이러한 고통을 해결할 길이 있는가? 있긴 하지만 쉬운 해결책은 없다. 다른 이들이 먼저 이 타문화 사역을 감당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전문인선교사들은 이 문제들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들 선배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첫번째 주요 원칙은 정직하고 겸손하며 투명하게 현실에 부딪히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삶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타문화권 사역을 감당하는 중들은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문인선교사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이해한다면 스트레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폴 히버트(Paul Hiebert)가 설명한 타문화권 적응의 세 단계(아래에 요약되어 있다)를 염두에 두고 참고하라.²⁾

히버트는 거의 모든 전문인선교사들이 높은 사명감과 최상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지로 간다고 말한다. 먼저 다음과 같이 느끼는 단계가 있다. 「마침내 내가 그렇게 오래동안 바랐던 곳으로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채로운 풍경이며, 소리들, 음식, 사람들, 풍습이며 문화, 모두가 정말 굉장하군요! 평생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 단계를 여행객 혹은 신희기라고 하며 개인에 따라 꽤 오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흥분이 사그라들 날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화 충동이 갑작스럽게 덮쳐오는가 하면, 점차적으로 문제점들을 인식해가는 사람들도 있다.

둘째 단계는 문화 충격과 더불어 시작된다. 히버트는 문화 충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갈 때 겪는 혼란과 방향 상실감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문화적인 패턴 모두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어진 것을 느낀다. 그 문화 속에서 사는데 대해 어린이가 만금도 아는 것이 없으므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 즉 말하는 법, 서로 인사하는 법, 먹는 법, 시장보기, 여행하기 등등 수많은 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³⁾

전문인선교사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 상황을 미리 이해한다면 스트레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잘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그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인선교사들이 다음의 사실, 즉 문화 충격이란 것은 모든 타문화권 사역자들이 겪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꼭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긴장을 풀고 현실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인선교 팀의 중요성은 바로 팀 안에서의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열고 문화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뚫고 나갈 수 있다는데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경험있는 선교사는 갓 시작한 전문인선교사에게는 커다란 격려가 된다. 선교사들이 자신과 가족, 회사, 모교회, 다른 사람들이 갖는 기대에서 오는 중압감으로부터 여유를 가질 때 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이다.

히버트는 두가지 문화에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문화 적응(adaptation)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강조한다. 전문인선교사들은 이러한 적응을 금세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너무나 많은 전문인선교사들이 신뢰와 지식, 언어적으로 자유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짧은 기간만 머물기 때문에 사역지의 문화와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깊은 유대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

2) Hiebert, P.G.(1992).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R.D. Winter & S.C. Hawthorne eds.,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rev.ed.), pp. C 9-C 23.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3) Hiebert, p. C 13.

7. 문화 적응이 바람직한 결과라면 전문인선교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사역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 적응은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문제다.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며, 천상적인 것도 귀신적인 것도 아님을 이해할 때 선교사는 문화적으로 적응할 수가 있다. 문화란 단순히 여러 민족들 속에 깊이 뿌리내린 역사적인 상이성을 의미할 뿐이다. 「다르다」는 것은 꼭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적응은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다. 장기 사역에 헌신하지 않은 전문인선교사의 경우, 지역어나 국가 공용어를 배우는 힘든 과정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언어는 한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며, 천상적인 것도 귀신적인 것도 아님을 이해할 때 선교사는 문화적으로 적응할 수가 있다.

민족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창이며, 이 창은 서서히 열린다. 적응에는 시간이 걸린다.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 가족들, 개인들에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현실을 직면하라.

모슬렘 환경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리아와 호세가 선교지에서 세속적인 직장을 갖고 사역한 것은 개척자적인 경험이었다. 사역과 직장일을 제대로 조화시키는 것은 호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가까지 했다.

마침내 전환점이 될만한 계기가 찾아왔다. 즉, 선교지의 문화는 단순히 자신들 문화와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하며 전혀 다른 것임을 루비오 부부가 깨

닫게 되면서부터였다. 그 지역 사람들은 루비오 부부의 고국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의 지휘법과 리듬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노래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상이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전문인선교사가 깨닫고 수용하고 포용할 때 새로운 나라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발견과 더불어 흥미로운 사실은, 전문인선교사가 타문화를 이해해 갈수록 자신의 문화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나라에 대해 관광객이 느끼는 식의 감탄은 곧 사라지고, 그대신 거부감이 생기고 심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이 비판의 결과로서 두 가지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 하나는 성숙기로, 이 기간 동안 전문인선교사는 선교지 문화의 핵심되는 면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문화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전적인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종종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게 된 선교사가 돌연 교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역을 끝내곤 한다.

루비오 부부는 성숙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들은 문화를 계속 배워가면서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적용하고 구체화시키려 했으며 가능한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냄새들, 추위, 수돗물의 부족, 전문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 서서히 진전되는 인간 관계들, 신자들과의 제한된 교제, 쪼들리는 예산, 복적거리는 거리, 만원 상태인

대중교통수단이 그들의 일상을 메꿔갔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다...그리고 이 삶은 서서히 재미를 붙일 만한 것으로 되어갔다!

모든 전문인선교사들이 이러한 문화적인 전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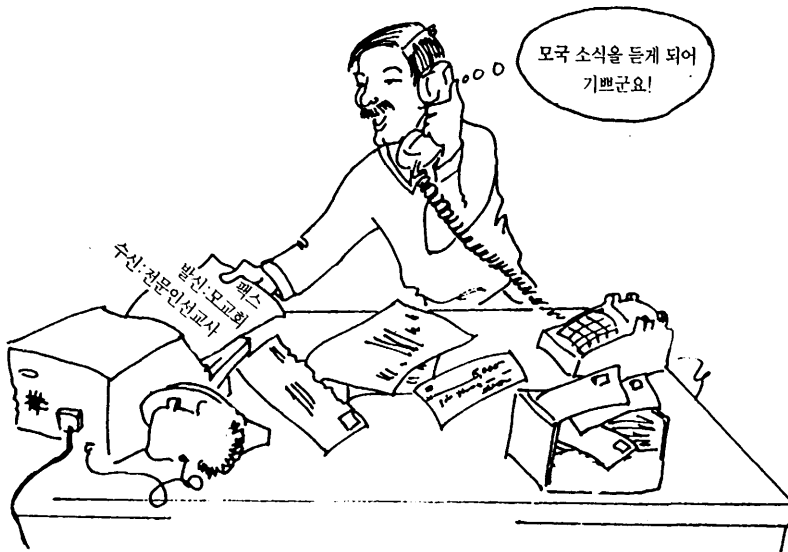
8. 전문인선교사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감에 따라 스트레스가 경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교회의 역할

루비오 부부는 선교지에서 사역할 동안 규칙적으로 서신, 방문, 전화 및 팩스를 받았다. 재정적인 지원은 모교회로부터 호세와 마리아가 받는 정서적이고 영적인 지원과 비교하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감사한 일이 있다면 이 교회들이 약속한 재정을 성실히 보내왔다는 것이다.

루비오 부부는 영적 전투를 그리 강조하지 않는 보수

적 성향의 남미 복음주의 교회에서 성장해 왔다. 이제 사역지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소모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모세가 그 팔을 계속 들고 있었던 것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을 겪었다. 루비오 부부에게 「모세」가 되었던 모교회들은 계속 그 팔을 들고 있었다. 호세와 마리아는 이러한 지속적인 후원에 너무도 감사했다.



이들의 미국 후원교회 목사와 몇몇 장로들은 교회 편에서의 엄청난 재정적 희생을 감수하고 항상 적시에 사역팀을 방문해 주었다. 이러한 방문은 뜨거운 대낮에 시원스레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냉수와도 같았다. 이 목사는 과거 사업가였다. 이 교회는 재정적 후원이라든가 기도 후원, 방문을 통해서 뿐 아니라 목사와 기타 교인들 중 전문인들을 동원해 사업에 대한 상담도 해주곤 했다.

호세가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면 진로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조언해준 이들은 바로 이 상담자들이었다. 목사님은 호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심도있는 상담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었다. 긴급한 일로 사역지를 떠나 갑작스런 여행을 해야 했을 때 교회는 그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주었다.

9. 루비오 선교사의 후원교회는 이들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었나?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후원 교회가 최선의 목양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전문인선교사를 교회 파송 선교사로 내보냈을 때,
2. 교회가 선교지 상황을 잘 알고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선교사와 하나가 될 때,
3. 전문인선교사 가족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필요한 부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4. 교회가 전문인선교사 가족을 위해 영적으로 돕고 관리해주며 현지에 맞는 전략 수립을 위해 애쓰는 것이 확실할 때(자체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만한 교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도의 지원이 되지 못하면 선교사는 별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된다.)
5. 교회는 전문인선교사 가족이 정기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하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부담해주어야 한다.

인식년 귀국

수년이 지나서 호세와 마리아는 늘어난 식구와 함께 아름다운 기억들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온다. 몇몇 충실한 친구들이 공항으로 마중온다. 사려 깊은 어떤 분은

가족의 「사적인 안식년 비용」으로 따로 써 달라며 거의 한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물한다. 신참 선교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신비한 구석은 없지만, 호세와 마리아는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전의 그들이 아니다. 고국에서의 삶도 예전과 같지 않다. 그들이 살던 도시는 이제 너무 커져서 새로운 거리, 새로운 집들, 새로운 상점이 들어섰고 유행도 달라졌으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인지 교회도 거의 달라졌다.

이전에 그들이 즐겼던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 「화학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라고 그들은 말한다. 수도물이 나오고 완전 자동세탁기에도 건조기가 있으며 친절한 의사들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똑같은 직장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또다른 「고향」인 중동에 두고 온 친구들을 그리워한다.

사람들은 호세와 마리아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호세는 점차 성숙이 더욱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는 외딴 곳에서 영적 전투를 치른 것이다. 그런데 전쟁터 같던 분위기는 이제 교회의 전략에 대해 다소 세속적인 토

론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한다. 담임 목사에게 사역 보고를 한 시간은 정말 좋았고, 개인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호세는 예전에 교회에서의 맡았던 일들을 회상한다. 그리고 삶은 이전과 같이 계속되는 것을 발견한다.

교회의 대예배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헌신도로 인해 당혹감을 금지 못한다.

호세와 마리아는 역문화충격을 거쳐야 함을 발견한다. 그들은 이 「본국의 정취」에 대해 비판하게 되고 예상 밖의 거부감이 생기는 것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고국의 문화를 다시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 대교회의 대예배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

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상하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헌신도로 인해 당혹감을 금지 못한다. 영적인 삶은 깊지가 못하고, 대신 꽉찬 스케줄과 분주함이 일상 생활을 차지해버렸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호세가 하던 사역보다 더 긴장감 없이 돌아가고 교회 내부의 일에만 치중되어 있다. 호세는 영적인 전투가 이제 지적인 전투로 바뀌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 교인들은 성장과 지도력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요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호세는 자신이 이 교회에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에 이러한 짐을 져야 할 것인지 걱정된다. 선교사란 직책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것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에 잔뜩 부담을 느끼면서 그는 새로운 사역에서 힘든 전투를 벌이고 있다.

10. 루비오 부부가 모교회와 고국의 문화에 재적응할 때 일종의 소외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는 루비오 부부의 사역 보고를 좋게 평가했다. 호세는 사역의 기회들을 갖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교회는 이들 가족이 재적응하는데 인내심을 갖고 후원하며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앞날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이 국의 사역을 위해 다시 중동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호세의 회사는 파산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열정이 남아 있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오래 동안 함께 염려하고 근심하며, 루비오 부부가 이 난관을 뚫고 고국의 문화에 재적응하는 과정을 도왔다.

요약

문화 적응 초기의 달콤한 기간이 일단 끝나고 일상의 반복된 생활이 제 위치를 찾기 시작할 때 전문인선교사에게 스트레스의 첫 단계가 시작된다. 선교사 자신의 문화적인 규범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혼란이 시작된다. 겉으로는 선교지의 언어 문제가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이 더 심각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문인선교사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일반 전문인들과는 달리 직장일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적인 관계의 발전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 때문에 자신의 집과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의 영향은 가족 내에서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인선교사는 문화적 요인으로 결정되는 또 다른 현실과 맞부딪혀야 하는 상황에서 직장일이나 전문 분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궁극적으로는 선교사와 그 가족은 좌절해버릴 수 있다.

그 문화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열쇠가 된다. 이 과정은 선교사 자신이 직면하게 될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파송 교회의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스트레스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파송 교회는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인들은 선교사가 모국의 문화에 재적응하는 어려운 기간 동안,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연구 및 활동 과제

1. 루비오 부부가 품었던 첫 기대는 무너져 버렸다. 전문인선교사로서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보라. 여기에 관해 조언해줄 수 있는 분이 나 선교회 지도부에 있는 분과 이 문제를 두고 의논해보라. 당신이 한 번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씩만 다루어 가도록 계획하라.

2.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한다.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으로,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음주나 과식같은 다소 파괴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어떤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생각해보라. 만일 이 부분에 약하다면 당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일단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러한 방법을 당신의 생활습관 속에서 구체화시키라.

3. 매우 신중하게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라 할지라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많은 경우에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곤 한다. 즉, 선교사들은 고향에 돌아온 것을 기뻐할 것이고, 사람들이 현재 사는 방식에 곧 적응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변혁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돌아온 선교사 가족에게, 흔히 이 귀국 기간은 너무도 무질서하게 느껴지고 실망을 가져다준다. 교회 지도부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선교사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다시 적응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흔히 보고기간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정에 있어 필수적이다. 전문인선교사로서 3년의 해외 사역을 마친 후 모교회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 중요할지를 열거해보라.

제 12 장

타문화 적용

자기 문화에 살면서 타문화 적용을 배우는 것은 마치 물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다. 물의 특성과 여러 수영 장소에 대해 연구하고 또 손놀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습할 수 있다. 수영하는 느낌이 어떨 것인가 상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수영에 관한 진정한 지식은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 수영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다.

선교지 문화(host culture)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현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겠는가도 제시했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우리의 자리를 선교지로 옮겨 보려고 한다. 사역자가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누구에게 동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가?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기꺼이 상처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살펴 보겠지만 우리는 전문인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한 직후 초기에 사용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타문화권 사역의 성패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새로운 문화에 소속감을 가질 것인가 라는 힘겨운 과업의 성취 여부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된다. 앞에서 말한 수영의 비유를 다시 든다면 많은 신임 선교사들이 얇은 물가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 충격과 갈등이 두려워 그 문화 속에 자신을 던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수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영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깊은 물 속으로 뛰어든다. 앞으로 논의될 내용을 통해 마르셀로 아코스타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문화적 적응을 위한 몇 가지 원리들을 보여줄 것이다.

문화적 통합의 경험

마르셀로 아코스타¹⁾

페트로브스키는 아프리카 미전도종족 가운데서의 사역을 위해 러시아 교회가 파송한 전문인선교사였다. 그가 우가붕가(Uga-Bunga)시 공항에 도착하자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온 그의 러시아 동료들이 마중 나와 그를 열광적으로 환영해 주었다. 동료들은 그를 즉시 한 선교사의 집으로 인도했고 그가 편안히 쉬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마치 러시아에 있는 것처럼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그후 수 주일 동안 동료들은 그에게 러시아 음식을 먹여 주었고 러시아 말로 대화했으며, 러시아제 자동차인 라다(Lada)를 타고 주변지역을 둘러보게 했다. 그는 가끔 아프리카 현지인을 만나기도 했는데 놀랍

게도 그들은 러시아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과 사귀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다.

페트로브스키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가 신학 교육을 받은 후에 선교적인 준비를 하는 동안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현실은 그 반대야 아닌가! 그는 마치 자신이 러시아에 돌아온 것 같이 느껴졌고 문화 충격의 조짐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물론 페트로브스키는 아직 「끔찍한」 아프리카 전통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곳 열매로 만든 「험스런」 음료도 마셔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는 「앞으로 나는 조금씩 이상한 관습을 가진 이곳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좋은 숙소와 차를 어떻게 구입해야 할 지 그리고 어떻게 언어를 배워야 할 지 먼저



1) 남미 출신인 마르셀로 아코스타(Marcelo Acosta)와 그의 아내는 이슬람 지역에서 전문인사역자로서 창의적 접근사역으로 개척선교를 감당한 선교사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새롭게 입국하는 여러 나라 출신 사역자들을 위한 1년간의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해 왔다. 그들은 모슬렘을 위해 사역하는 한 남미 선교단체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

선배 선교사들의 조언을 들어야겠다. 그리고 나면 이곳 사람들을 대면할 여유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다.

위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이야기는 많은 타문화권 선교사와 전문인선교사들의 경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사역자가 첫날부터 현지 문화

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또 현지인 대신 동료 선교사들과만 상대한다면, 그들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현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그들은 또한 점점 더 현지인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사회적 관계는 그의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로 제한될 것이다.

1. 비록 이 러시아 출신 전문인선교사의 예가 약간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 해외에 나간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태도로 현지 문화를 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이 러시아인이 보였던 태도가 해외에 나간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가?)

입국 전략

현지문화적응: 초기접합(Bonding)

문화적으로 동화되지 않는 것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복음 증거가 금지된 북아프리카의 아랍 국가인 마돈(Madon)에서 하나의 체계화된 적응 과정을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충격을 느낄 수 있었다. 마돈 사람들의 외모는 우리 남미인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쓰고 있었고 그들의 옷차림도 달랐고 심지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다.

어디를 가든지 가난이 있었다. 거리는 좁고 더러웠으며 줄지어 상점이 늘어서 있었다. 주로 성인 남자와 소년들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고 삶의 이유를 애타게 찾고 있는 듯 보였다. 아이들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여러 사람들이 자청해서 도시를 안내하겠다고 나섰다. 우리는 좁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파는 주스와 음식은 생전 처음보는 것들이었다. 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런 것들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자연 그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도착 후 첫 주부터 시작된 이 고통은 다섯달이나 계속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과정이 지나자 이 문화는 서서히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만약 이 과정을 거부했다면 우리의 문화적응 과정은 더욱 어려워졌을 것

2) 문화적응의 문제는 브루스터(Brewster) 부부가 잘 다루고 있다. 여기 든 예도 브루스터가 쓴 논문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Brewster, E.T., & Brewster, E.S. (1982). *Bonding and the Missionary Task: Establishing a Sense of Belonging*. Pasadena, CA: Lingua House. 안전상의 이유로 국가명을 바꿨다.

3) 이 문화적응과정은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인 리차드/코니 스미스 부부(Richard and Connie Smith)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첫 몇 주간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때 선교사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주택이 없었고 대신 모슬렘 가족과 함께 검소한 생활을 해야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자고 먹고 그들 속에서 배웠다.

우리가 처음 마돈에 도착했을 때 그 곳은 매우 추운 우기였다. 우리는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만원 버스를 타야만 했다. 모든 것이 낯선 나머지 이에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첫 몇 주간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때 선교사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와 현지인들 사이에 가로 놓인 문화적 차이들과 장벽들을 깨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현지인들도 조금씩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언어공부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자 그곳 생활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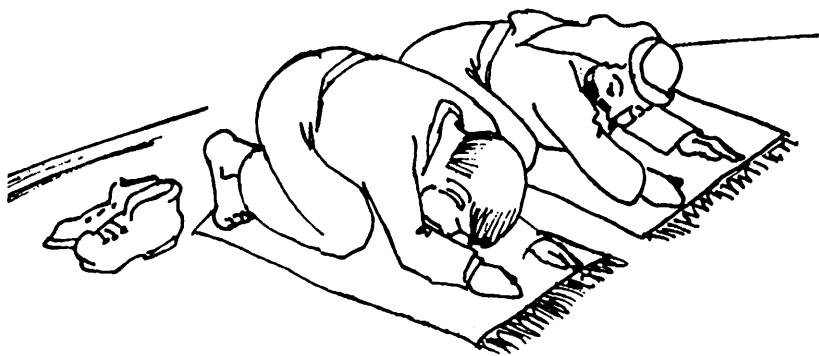
이곳 사람들이 매우 종교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집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

슬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을 말해 주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으며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담배와 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 이야기에 그들은 놀라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양 사람이거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양자는 그들에게 같은 존재이다) 전혀 도덕관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지인들과 다른 자세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고 오해할까 봐 조심했다. 성경에 이와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하는 예식대로 기도하기 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또 바닥에 깨끗한 천을 깔고 꿇어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기로 했다.

모슬렘의 금식달인 라마단 기간이 되자 아내와 나는 그들과 함께 금식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하는 동기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우리가 세들어 살고 있던 집 주인은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웃 사람들은 이 집에 모슬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더욱 진지하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가능한한 그들처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들은 동족처럼 받아들여 주었다.



2. 저자의 타문화 적응과정은 러시아 선교사의 그것과 어떻게 달랐는가?

3. 장기적으로 볼 때 저자와 러시아 선교사, 어느 쪽의 태도가 전문인선교를 위해 더 효과적이겠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동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수준

마돈 지역은 복음 전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식적인 체류 이유는 유럽으로의 용단 수출 사업이었다. 마돈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신분에 맞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의상 등도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달라야 했다. 이러한 가치 체계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집 주인은 우리에게 사업가로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우리가 만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려 한다면 사업이 잘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모순점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사역을 제한할 것이다.

창의적접근지역에서 전문인선교사로서 사역하고자 한다면 먼저 어떤 신분으로 활동할 것인 가를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지위/직업에 따라 당신이 사역할 수 있는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문인선교사가 빈민가에서 사역하기 원한다면 그는 빈민가를 접촉할 수 있는 신분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는 예로서 필자와 같은 선교회

소속으로 빈민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관련되어 있는 선교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는 다양한 계층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빈민가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는 자연스럽게 빈민가 주민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컴퓨터 판매를 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구매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전문인선교사가 빈민가에서 사역하기 원한다면 그는 빈민가를 접촉할 수 있는 신분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할 것이며 의복도 중산층처럼 입어야 하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한다. 만약에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가난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원한다면, 그는 커다란 좌절감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 않아 그 사람은 아마도 선교지를 떠나게 될 것이다.

6. 필자의 직업과 그의 생활 수준의 불일치가 왜 그의 사역에 제약이 되었는가?

커뮤니케이션

언어습득의 중요성

타문화 사역자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언어를 잘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은 그 나라에 도착한 첫날부터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가족의 경우 첫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마디의 현지어로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왜냐하면 함께 살게 된 현지인들이 아랍어 밖에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요된 상황은 우리가 그 새언어를 능숙하게 말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니다. 혹시 잘못된 단어를 말하게 되거나 또는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오

해를 야기할 것이 두렵기도 했다. 우리는 현지 학교에서 매일 네 시간씩 언어공부를 했다. 하루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지난 주는 정말 힘들었다. 월요일에는 아랍어 공부를 잘 했다. 화요일에도 괜찮았다. 그런데 수요일이 되자 나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혼동에 빠졌다. 그리고 나는 함께 살고 있는 현지인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들은 거의 매일 두, 세 사람의 친구를 초청해서는 나와 이야기하도록 만든다. 이곳 문화는 남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여자가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와 나는 거의 함께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사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모종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언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언어학습을



도와줄 사람을 발견했다. 우리는 그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그가 말하는 단어와 숙어 그리고 문장을 받아적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받아 적은 것을 몇번이고 그를 통해서 다시 들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단어에 익숙하게 되고 결국에는 문장구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만든 자료에 대해 확신이 들면 그것을 들고 거리로 나가 여러 다른 사람들(점원, 노점상들, 상점주인들 등)과 그 내용으로 대화하면서 계속 그것을 실습하려고 애썼다.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우리는 조금씩 사람들에게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우리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비웃는 가 하면 어떤 사람은 피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기꺼이 도와주었다. 하루는 나의 아내가 메디나(도시의 구시가지)에서 여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 중 한 여자가 우리 가족을 그녀의 집에 초청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은 방이 하나 뿐인 집이었는데 이 집에서 여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 짧은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녀 가족과 친해졌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자기도 했다. 이런 우정의 관계는 비록 서툰 언어로라도 그들과 직접 대화하려고 애쓴 결과였다.

5.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지인들과 현지어로 대화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LAMP⁵⁾ 방법과 학교 공부를 동시에 시도한 저자의 접근법은 언어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떤 유의점과 불리한 점이 있겠는가?

타문화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이 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많은 의사소통은 태도들, 행동들, 몸짓들, 몸의 움직임, 그리고 얼굴 표정(예를 들면 미소, 눈동자의 움직임, 다른 사람을 보는 눈길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타문화 사역자가 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지하다면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또한 의사소통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풍습과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며 그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한번은 현지인 친구 모하메드에게 사업차 가는 여행에 동행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는 용단을 구입하기 위하여 여행에 기꺼이 함께 가기로 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는 모하메드의 도움으로 좋은 품질의 용단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었다. 나는 그의 도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시종 모하메드에게서 뭔가 모르는 긴장감을 느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나고 물었을 때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끈질기게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당신 친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지난 이틀 동안 내 일을 미루어놓고 당신과 함께 여행했고 그 결과 당신은 싼 값에 좋은 제품을 구했다. 그 결과 당신은 많은 돈을 벌게 되었

5) 이 방법은 소위 "LAMP Method"로 알려진 것으로 Thomas and Elizabeth Brewster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Brewster, E.T. & Brewster, E.S.(1976), *Language Acquisition Made Practical : Field Methods for Language Learners*. Colorado Springs, CO: Lingua House.

다.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더 우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때때로 현자인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처음에 나는 모하메드의 반응을 듣고 놀랐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모하메드 이 친구 꽤찮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냐!」

그러나 상황에 대해 잘 되새겨 보면서 나는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돈에 살고 있는 이 친구에게 내 고향의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친구를 위해 하는 수고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돈에서는 달랐다. 비록 모하메드가 내 친구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친구의 수고에 대해 마땅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했던 것이다. 문화에 대한 내 무지 때문에 하마터면 가장 친한 현자인 친구를 잃을 뻔했다.

나에게 있어 또 한가지 어려웠던 것은 남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교환되는 육체적인 접촉의 관습이었다. 마돈

에서는 남자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의 볼에 세번씩 키스를 한다. 그런데 그들이 키스하려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을 뒤로 빼곤 했는데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그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다. 한편 여러 현자인 남자 친구들과 길을 걸을 때면 다른 친구들이 내 손을 잡지 못하도록 나는 언제나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왜냐하면 마돈에서는 남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걷기 때문이다. 서로 손을 잡고 걷는 것은 둘 사이의 우정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미에서 남자들끼리 손을 잡고 걷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나는 점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자문화중심주의⁶⁾는 타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더 우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때때로 현자인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고, 그들의 도덕기준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비록 우리의 말과 몸짓이 그들을 수용하는 것처럼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를 어렵게 만든다.

6.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왜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가?

6) 자문화중심주의란 자기 문화가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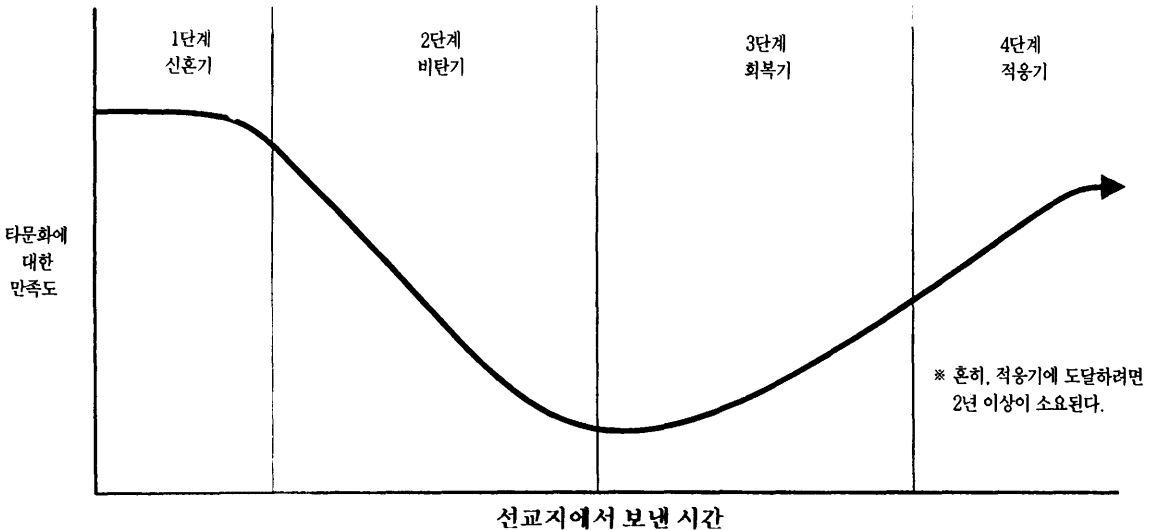
계속적인문화적응

문화충격

어떤 전문가들은 문화충격을 네 단계로 설명한다. (도표 12-1 참조). 첫번째 단계는 신흠기이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멋져 보이기만 한다. 다음 단계는 비판의 단계이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인다. 음식은 형편없고, 사람들은 부정직해 보인다.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고국으로 돌아가고픈 욕망을 자주 느낀다. 세번째 단계는 초기 회복 단계로 현지 언어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기이다. 처음에 이상하게만 보이던 풍습들을 조금씩 용납하게 된다. 유머 감각이 회복되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 서서히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네번째 단계는 완전히 적응된 단계이다. 새로운 문화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며 이때쯤 되어서 사역은 열매를 보이기 시작한다.

폴 히버트는 문화충격을 이렇게 설명한다. 지원한 선교단체로부터 허입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만족감 정

도는 최고조에 달한다. 이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파송 예배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커다란 만족감을 느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담임목사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항에서도 이러한 기분은 계속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에 대한 흥분이 교차한다.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처음부터 갖고 있던 흥분이 당분간 계속된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별안간 낯설다. 아무리 노력해도 음식은 입에 맞지가 않다. 자주 몸이 아픈데 현지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상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이상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진다. 마음 같아서는 가장 가까운 특급 호텔에 한번 묵었으면 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이를 우리는 문화충격이 시작되었다 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워오고 몸에 밴 우리의 문화지도(Cultural Map)와 지침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12-1)문화충격의 단계들

7) Hiebert, P (1985).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MI : Baker Book House.

마돈에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문화충격을 경험했다. 처음에 우리는 어떤 버스를 타야 하는지 택시는 어떻게 타야 하는지도 몰랐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지도 몰랐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입고 다니는 의복은 보면 볼수록 우스꽝스럽게만 느껴졌다. 오래 되지 못해 우리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지인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같았을 것이다.

어느날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기장에 썼다.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다. 그렇지만 나에게서는 그리 즐겁지 않은 날이었다. 아랍어 수업의 어려움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나는 아무와도 이야기 하

지 않고 조용히 나 혼자만의 일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문화충격에 대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전부터 익숙해 있는 우리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동시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럽다. 우리가 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아마 뒤에 더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 모두가 함께 적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독특한 경험이다. 이 과정을 바른 태도로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문화충격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적응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신입 선교사들은 변화된 자신들의 태도를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쉽게 화를 내거나 매사에 비판적이 되고 자주 몸이 아파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잘 참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먼저 자신이 문화충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런 것이며 결코 영적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신입 선교사는 멀지 않아서 이 충격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과 당혹감을 주는 이 상황에서 달아나고픈 유

혹을 기꺼이 뿌리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부딪히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고통스런 상황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너무 어려워서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선배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 유의할 점은 선배선교사를 방문하는 것이 결코 도피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며 또 현지문화나 현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서도 안된다. 그렇게 뒤로 물러서면 그 선교사는 문화충격의 비판적 단계를 결코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그의 사역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8. 저자로 하여금 문화 적용 과정의 고통과 불편함을 견딜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무엇인가?

한편 만약 우리가 현지인과의 접촉을 조심스럽게 계속 유지하고 그들의 일원이 되어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만 한다면 조금씩 그 새로운 문화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두려움 없이 주어진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현지의 관습과 음식을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점차적으로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같은 나라 출신들에게서 뿐 아니라 현지들과

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정과 동료의식을 느끼기 시작한다. 고국을 사랑하는 것 만큼 선교지와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고국에 귀국하게 되는 경우 그들은 선교지의 친구들을 향해 그리움을 느낀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문화 모두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이중문화인(bicultural man)이 된 것이다.

9. 만약 전문인선교사가 다른 외국인들 안에서만 우정과 관계적 충족감을 찾으려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겠는가?

요약

전문인선교사들이 해외의 새로운 문화를 적응함에 있어서 어떤 접근법을 사용하느냐는 그 문화와의 일체감 형성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는 쉽게 새로운 문화로부터 격리된 채 고립된 생활의 유혹을 느낀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는 결코 그 문화에 소속감을 가질 수 없다. 새로운 문화에 완전히 잠입(immersion)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함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선교사가 때때로 적응에 실패할 수도 있는 접근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러한 문화진입(acculturation) 과정을 견뎌내기만 한다면 선교사는 현지인들의 신임을 얻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문화 속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전문인선교사가 새로운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신들이 일체감을 갖고자 하는 사역 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다.

효율적 사역을 위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것은 사역 대상이 되는 언어를 잘 습득하는 것이다. 잠입식접근법

(immersion approach)을 채택하는 이들은 정규 언어학교에 출석하는 것 외에 그들이 배운 바를 지속적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실습해 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배울 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몸짓, 제스처, 문화적인 기대들 역시 중요한 요소들이다. 참된 의사전달을 하는데 가장 큰 장벽 중의 하나는 자문화중심주의이다. 즉 자신의 문화가 선교지 문화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믿는 사고방식이다.

문화적응을 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전문인선교사들은 먼저 신혼기를 통과한다. 다음으로는 비판적인 단계로 모든 것에 혼돈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가장 어려운 과정이 지나면 사역자는 서서히 회복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적응의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장기사역자들은 위와 같은 문화충격의 과정을 겪는다. 현지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과 접합(bonding)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이 어려운 전환기의 고통을 최소화시켜 줄 것이다. 일단 한번 전환이 이루어지면 전문인선교사는 성공적으로 문화 적응을 하게 될 것이며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중문화적인 사람(bicultural people)이 된다.

연구 및 활동 과제

1. 앞에서 읽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경우 당신에게 있어 가장 바람직한 과정이 어떤 것일지 묘사해 보라. (가능하다면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적용해 보라). 당신의 결정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라. 여기서 묘사한 상황들은 당신이 앞으로 타문화권에 들어가게 될 때 실제로 겪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

2. 타문화권 내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면 대화의 가능성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들과의 관계 형성이 시작된다. 언어 습득은 공식적인 교육 또는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법률 및 관공서의 문서는 불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업 등 일상생활에서는 회화체 아랍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읽고 쓰기에서는 고전 아랍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자신들의 고유 언어로 대화하기를 더 좋아한다. 먼저 습득해야 할 언어는 일상 회화체 언어나 공식어이다. 그 언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가능하다면 지금부터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라.

3. 어느 정도의 문화충격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한 나라 안에서 이사한 경우에도 사람들은 문화충격을 경험한다. 친구와의 이별, 마음의 혼동 등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울증, 심리적 동요, 그리고 여타의 문화충격 징후들을 경험한다. 12-9페이지에서 설명한 문화충격의 네 단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각 단계마다 그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성경구절을 한 두 구절씩 뽑아서 외우라.

결론

필자는 지금 이 훈련과정을 마친 여러분들이 어디쯤 도달했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필자의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세계지도를 응시하면서 195개국의 경계선을 본다. 이 그림 속에는 5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선교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전세계 인구를 현재까지 확인된 6,000개의 미전도 종족집단 속에 살고 있는 수억의 남녀노소로 나누어 본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규 선교사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전문인선교사로서 이 무리들에게 전도할 열쇠를 쥐고 있는 당신이 아니라면 이러한 현상은 서글프게만 보일 것이다.

당신은 전문인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주권자이신 선교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당신은 신성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창의적접근국가라는 시장터에서 전문 분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헌신을 했다. 그래서 당신은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민감한 아라비아 반도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필리핀 선교사도 있고, 중국에서의료 기술자로 섬기고 있는 한국인도 있으며, 북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고 있는 과테말라 출신의 엔지니어도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활약 중인 여성 사업가도 있으며, 중동에서 사역 중인 유럽 출신의 위생 기사도 있으며, 북아프리카에서 일하는 나이지리아 출신 석유개발 자문관도 있다. 인종적으로도 흑, 백, 황, 백인을 망라하여 모든 대륙으로부터 모든 대륙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보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성공적인 전문인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본다. 당신이 작성한 개인행동계획표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한다. 그 지도를 따라 가보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표를 주신 것은 그가 부르신 그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이다.

용기를 내라! 이 지구상에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뜻을 품고 있으며, 또 수천명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롭고, 훈련된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삼고 있는 전문인선교사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진지하게 생각하라!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당신은 목표를 가다듬고, 달성하기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 열심히 읽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학생이 되라. 다른 자료들도 입수해서 모든 영역에서 계속 성장해가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 당신이 순종할 수 있고, 당신의 현재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 지도해줄 수 있는 멘토와의 관계를 형성하라. 같은 꿈을 가진 형제자매들의 그룹에 소속하려고 하되, 이런 그룹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 멘토와 동역자 그룹을 정규적으로 만나 기도하고, 평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훈련하도록 하라.

실천하라! 당신이 입안한 개인행동계획표를 따라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확인해주시고, 단계별로 인도해주실 것을 믿으라.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보면서 필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보면서 기뻐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 모여 어린 양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또한 당신을 통해서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알게 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모일 것이다.

윌리엄 D. 테일러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회
총무

부록A

개인행동계획표

다음에 나오는 표는 각과의 활동계획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연결한 것이다. 과제 내용은 이 교재를 공부하면서 완성하는 것이지만, 어떤 목표들은 달성하는데 수년이 소요되기도 할 것이다.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입안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간계획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일들을 수행하고 유능한 전문인선교사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정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활동계획번호는 이 표의 첫번째 칸에 나와있다. 그 다음 칸은 취해야 할 행동이다. 목표 설명은 이 활동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를 표현한다.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이 교재의 1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다음의 두 칸은 시작하고 끝내는 날짜들을 적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칸은 이 목표의 달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고해야 할 사람을 적는 난이다. 아래에 두가지 항목에 대한 견본을 제시하였다.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 일	완수 예정 일	완료 후 보고 대상
2-1	지상대명령 암송 (마 28:18~20)	암송 카드에 구절을 적어서 매일 아침 5분씩 암송하라.	1/12	1/17	홍길동 목사
5-3	당신의 직업 경력 면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라.	직업 상담원과 상의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취업정보에 대해 기록하라. 기술학교에 카탈로그를 요청하라.	2/13 3/4 3/4	3/3 3/4 3/4	이몽룡 전도사

표 A-1

제1장 : 성공을 위한 계획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1-1	소속한 교회의 선교책임자 1명 이상에게 당신이 선교후보자로서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지도자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라.				
1-2	목표설정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암송하고, 이를 개인행동 계획표의 목표설명란에 적으라.				
1-3	교회의 선교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당신을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라.				

제2장 : 전문인선교의 관점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2-1	지상명령 (마28:18~20)을 암송하라				
2-2	당신의 교회에서 최소한 세사람에게 당신이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2-3	전문인선교에 대한 교회의 정책이 어떠한지 알아 보라. 문서로 된 교회의 선교정책을 검토하거나, 지도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제3장 : 타문화 사역자들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원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3-1	교회의 선교 지도자들에게 당신의 선교적 소명에 대해 말하라.				
3-2	당신의 소명을 점검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기 위해 취할 구체적인 단계들을 나열해 보라.				
3-3	영적 삶에 대한 평가표에서 더 나은 평가를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 계획들을 세우라.				

제4장 : 지역교회의 역할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4-1	당신의 교회가 선교적 역할을 더 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목표 달성 방안들을 적어보라.				
4-2	교회의 선교 책임자와 함께 잠정적인 이행 협의서를 작성하라.				
4-3	모교회와 전문인선교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목표들(단계)을 열거하라.				

제5장 : 선교사 배치 전략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5-1	세사람 이상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전문인선교사의 “윤리성”에 대해 설명하라.				
5-2	당신을 상담, 지도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영역에 있어서 당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해 보고 이를 개선할 방안 에 대해 토의해보라.				
5-3	직업적인 면에서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당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라.				

제6장 : 성경적, 교리적 기초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6-1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기 위한 목표달성 계획을 세워보라.				
6-2	당신이 약한 성경적, 신학적 분야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설명하라.				

제7장 : 개인적 준비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7-1	전도할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목표 달성 계획들을 만들라.				
7-2	세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라.				
7-3	두세 선교회에 편지를 쓰라.				

제8장 : 두가지 필수적인 기술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8-1	제자훈련자가 되기 위한 목표 달성 단계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라.				
8-2	개인전도에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 달성 단계들을 세워보라.				
8-3	제자삼기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측면에서 발전하기 위한 목표 달성 계획을 세워보라.				

제9장 : 팀 역학과 영적 전투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9-1	<p>잠재적인 팀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기 위한 목표 달성 계획들을 세워보라.</p>				
9-2	<p>“좋은 관계를 위한 언약문”을 작성한 다음 미래의 팀동료나 교회의 선교 지도자와 토론하라.</p>				
9-3	<p>교회의 선교 지도영적 전쟁의 역학을 이해하고, 이 영역에서 더 많은 능력을 얻기 위한 목표 달성 계획들을 세워보라.</p>				

제10장 : 선교지 문화 이해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10-1	소속한 교회의 당신의 문화적 요소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라.				
10-2	사역할 대상 문화의 요소들을 조사하고, 자신의 출신 문화와 비교할 연구 계획을 세워 보라. 이것을 훈련자나 타문화 경험을 가진 사람과 나누라.				

제11장 : 스트레스 극복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11-1	선교지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 훈련자에게 설명하고, 지나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충족할 계획을 세우라.				
11-2	건설적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목표 달성 방법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라.				
11-3	교회의 선교 지도자들과 함께 재입국 과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라.				

제12장 : 타문화 적응

활동 계획 번호	취해야 할 행동	목표 설명	시작 예정일	완수 예정일	완료 후 보고 대상
12-1	대상문화에 "입국" 할 계획을 세우라.				
12-2	당신이 사역하려고 하는 지역의 무역 및 공용어를 배우기 위한 과정들을 대략적으로 서술해보라.				
12-3	문화충격을 받을 때 당신을 지탱해줄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라.				

부록 B

추천도서(국문)

전문인선교

- 야마모리, 테츄나오 외, 이득수 역. 「직업 선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1991.
- Penetrating Missions' Final Frontier: A New Strategy for Unreached Peopl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3. (조이선교회 근간)
- 윌슨, 크리스티, 김만풍 역. 「현대의 자비량선교사들」. 순출판사, 1989.
- 추, 짐. 「타문화권 선교」. 네비게이트 출판사, 1994.
- 하이벨, 빌, 독고 엔.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한세, 1993.
- 해밀톤, 돈, 정진환 역. 「자비량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이출판사, 1990.

선교신학

- 고너, 코넬, 노창우 역.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침례회출판사, 1986.
- 글라셔, 아더/ 맥가브런, 도날드, 고환규 역. 「현대 선교 신학」. 성광문화사, 1990.
- 김명혁 편역,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성광문화사, 1983.
- 바빙크, J.H., 전호진 역. 「선교학개론」. 성광문화사, 1980.
- 베르카일, 요하네스, 최정만 역. 「현대 선교학 개론」.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보쉬, 데이비드, J., 전재욱 역. 「선교신학」. 두란노,

1980.

- 블라우, 요하네스, 채은수 역. 「구원사 속의 선교」. 한국로고스연구원, 1987.
- 스토티, 존, 김명혁 역. 「현대 기독교 선교」. 성광문화사, 1981.
- 이태웅. 「한국선교의 이론과 실제」. 해외선교회출판부, 1994.
- 전호진. 「선교학」. 개혁주의신행협회, 1987.
- 케인, 허버트, 이재범 역. 「선교 신학의 성서적 기초」. 나단, 1976.
- 헤셀그레이브, 데이빗 J., 전호진 역. 「신학과 선교」. 엠마오, 1986.
- Hedlund, Roger E., 송용조 역. 「성경적 선교신학」. 서울 성경학교 출판부, 1990.

선교사의 삶

- 레인, 데니스, 도문갑 역. 「선교사와 선교단체」. 두란노, 1993.
- 머레이, 앤드류, 김지찬 역. 「순종의 학교에서」. 말씀사, 1988.
- 물러, 죠지, 박준언, 성현모 역. 「죠티 물러의 일기」. 두란노, 1990.
- 미실다인, W, 휴, 이종범 역. 「몸에 벤 어린 시절」. 카톨릭 교리 신학원, 1989.
- 변재창. 「작은 목자 훈련」. 두란노서원, 1992.
- 브라이언트, 데이빗, 안진원/김명희 역.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라」. 조이선교회, 1992.

- 스나이더, 하워드, 김영국 역.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명의말씀사, 1987.
- 스미스, 오스왈드 J., 이기양 역. 「영혼 구원의 열정」. 여일사, 1993.
- 이태웅. 「제자훈련은 이렇게」. 두란노서원, 1992.
- 케인, 허버트, 민명홍 역.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되어야 하는가?」. 조이선교회, 1990.
- 케인, 허버트, 백인숙 역.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두란노서원, 1986.
- 테일러, 레나, 정민영 역. 「선교 현장 이야기」.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1989.
- 토저, A.W., 강귀봉 역. 「경건 생활의 기초」. 말씀사, 1974.
- 권혁봉 역. 「패배를 통한 승리」. 말씀사, 1975.
- 패커, J.I., 서문 강 역. 「성령을 아는 지식」.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 피펫, 레베카, 정애숙 역. 「빛으로 소금으로」.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1988.
- OMF 편, 민문영 역.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한 사람들」. 성서유니온, 1990.
- 정병길 역.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한 사람들」. 성서유니온, 1987.

선교역사

- 니일, 스티븐, 홍치모/오만규 공역. 「기독교 선교사」. 성광문화사, 1980.
- 워어스비, 워렌.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 엠마오, 1991.
- 케인, 허버트, 박광철 역. 「기독교 세계 선교사」. 생명의말씀사, 1981.
- 터커, 루스, 박해근 역. 「선교사 열전」.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타문화커뮤니케이션

- 나이다, 유진, 채은수 역. 「문화 속의 종교」. 한국로고스연구원, 1986.

- 니콜스, 브루스, 김성욱 역. 「상황화:복음과 문화의 신학」. 말씀사, 1992.
- 리차드슨, 돈, 정중은 역.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생명의말씀사, 1992.
- 김지찬 역. 「화해의 아이」. 생명의말씀사, 1987.
- 링엔펠터, 셔우드 & 메이어스, 메빈, 왕태중 역. 「문화적 갈등과 사역」. 조이출판사, 1989.
- 바빙크, J.H., 권순태 역. 「기독교선교와 세계문화」. 성광문화사, 1987.
- 박영호. 「뉴에이지 운동 평가」.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 앤더슨, 노오만, 민태운 역. 「세계의 종교들」. 말씀사, 1985.
- 앵겔, 제임스 F., 정진환 역.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 조이선교회, 1991.
- 크랩, 찰스, 김동화 역. 「복음과 커뮤니케이션」.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1991.
- 한상복, 이문영, 김광익 공저.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출판부, 1985.
- 허버트, 폴, 채은수 역. 「문화 속의 선교」. 총신대학 출판부, 1987.

도시선교

- 간하배, 한화룡 역. 「현대 도시 교회의 전망」. 여수론, 1991.
- 그리, 비브, 한화룡 역. 「가난한 자들의 친구」.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 그린웨이, 로저 S., 이재범 역. 「도회지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 서울: 여수론, 1988.
- 도우슨, 존, 유재국 역.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예수 전도단, 1992.
- 한화룡. 「도시 선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1993.

이슬람

- 게오르규, 비르질, 민희식 역. 「알라여 알라여」. 고려

원, 1985.

- 말쉬, 찰스 R., 이광호 역. 「모슬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자」,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 버드, 잭, 중동선교회 역.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예루살렘, 1992.
- 슈이크, 빌퀴스, 박양미 역. 「어느 이슬람 여인의 회심」, 임마누엘, 1990.
- 아브라함, 이삭, 윤삼열 역. 「이슬람교 세계와 기독교 선교방향」, 보이시스, 1991.
- 쿠퍼, 앤. 「우리 형제 이스마엘」, 두란노, 1992.

선교전략

- 맥가브란, 도날드, 이광순 역. 「하나님의 선교전략」,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 네비우스, 존, 김남식 역. 「네비우스 선교 방법」, 1981.
- 넬슨, 말린, 윤두혁 역. 「오늘의 아시아 선교」, 보이시스, 1976.
- 바이엘하우스, 피터, 김남식 역. 「선교정책원론-인간회나 복음화나?」, 성광문화사, 1982.
- 솔트우, T.S., 신흥식 역. 「현대선교전략」, 크리스찬비전하우스, 1990
- 알렌, 롤랑, 김남식 역. 「바울의 선교방법론」, 베다니, 1993.
- 와그너, 피터, 전호진 역. 「기독교 선교 전략」, 서울: 생명의말씀사, 1978.
- 전호진. 「종교 다원주의와 타종교 선교전략」, 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KRIM) 편, 「미완성 과업」, 선교한국조직위원회, 1990
- 헤셀그레이브, 데이빗. 「현대 선교의 도전과 전망」, 장신대 세계선교원, 1991.
- Hulbert, Terry C., 윤혜준 역. 「오늘의 세계 선교」, 말씀사, 1979.

지도력

-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쉽」, 엠마오, 1987.

- 듀웰, 웨슬리, 정중은 역. 「열정적인 지도자」, 생명의말씀사, 1992.
- 베이미, 란, 허광일 역. 「21세기의 지도자」, 예수전도단, 1993.
- 샌더스, J.O., 이동원 역. 「영적 지도력」, 요단출판사, 1982.
- 아임스, 리로이.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네비게이트출판사, 1982.
- 와그너, 피터, 김선도 역. 「교회 성장을 위한 지도력」, 생명의말씀사, 1984.
- 클린턴, 로버트, 이순정 역. 「영적 지도자 만들기」, 베다니출판사, 1993.
- 화이트, 존, 이석철 역. 「탁월한 지도력」,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1991.

영적전투

- 부백, 마크, 유화자 역. 「사단을 대적하라」, 생명의말씀사, 1982.
- 브룩스, 토마스, 정중은 역.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대적 방법」, 나침반사, 1989.
- 사다르, 사무엘, 황영철 역. 「마귀론과 정신 질환」, 생명의말씀사, 1987.
- 앤더슨, 닐, 유화자 역.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조이선교회, 1994.
- 「이제 자유입니다」, 조이선교회, 1994.
- 오진희 역. *Breaking through to Spiritual Maturity*. 조이선교회, 1994.
- 워너, 티모씨, 안점식 역. 「영적 전투」, 조이선교회, 1993.

내적치유

- 그레함, 빌리, 정규채 역. 「소망, 상한 마음을 위하여」, 조이선교회, 1993.
- 맥도날드, 골든, 홍화옥 역.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성장」,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1990.
- 셀, 찰스, 정동섭/최민희.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두란노, 1992.

- 스윈들, 찰스, 정진환 역. 「은혜의 각성」. 죠이선교회, 1992.
- 씨맨즈, 데이빗, 송헌복 역. 「상한 감정의 치유」. 두란노, 1986.
- 윤종석 역. 「치유하시는 은혜」. 두란노, 1990.
- 이성훈, 「내적 치유」. 은혜문화, 1993.
- 콜린스, 게리, 허영자 역. 「마음 탐구」. 두란노, 1987.
- 킨저, 마크, 정옥배 역.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두란노, 1988.
- 휘일, 마저리, 유경애 역. 「영광스러운 상처」. 죠이선교회, 1992.

선교 저널

-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 간. 「현대 선교(계간)」.
- 아세아선교회 간. 「미션 월드(월간)」

부록 B

추천도서(영문)

이 부록의 자료들은 아래의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음.

- 전문인선교 일반
- 선교 계몽
- 신앙과 세속일의 통합
- 세계 종교와 변증학
- 사역의 원리
- 타문화권에서의 민감성
- 언어 학습
- 배치/자문 기관들

전문인선교 일반

Aldrich, J.C. *Lifestyle Evangelism: Crossing Traditional Boundaries to Reach the Unbelieving World*. Portland, OR : Munltnomah Press, 1983.

Anthony, R., & Roe, G. *Educator's Passport to International Jobs*. Princeton, NJ: Peterson's Guides, 1984.

Beckman, D.M., et al. (Eds.). *The Overseas Lists: Opportunities for Living and Working in Developing Countries*. Minneapolis, MN: Augsburg Press, 1985.

Bramlett, J. (Ed.). *Finding Work: A Handbook*.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6.

Casewit, C.W. *Foreign Jobs: The Most Popular Countries*. Washington, DC: Seitar International Publication, 1984.

Copeland, L., & Griggs, L. *Going International: How to Make Friends and Deal Effectively in the Global Marketplace*. New York, NY : Random House, 1985.

Hamilton, D. *Tentmakers Speak*. Ventura, CA: Regal Press, 1987.

Hesselgrave, D.J. *Communicating the Gospel Cross-*

1) 이 영문 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싱가포르 제자훈련원(D.T.C.)의 P. 마맨과 캘리포니아의 TMQ 연구소의 단 해밀튼에게 감사를 드린다.

2) 이 교재를 집필한 필자들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추천한 책들임.

Culturall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4.

Hybel, B. *Christians in the Marketplace*.
Wheaton, IL: Victor books, 1986.

InterCristo. *Career Kit*. (Available from :
InterCristo, P.O. box 33487, Seattle, WA 98133).

Intenational Employment Gazzette. (Available
from: 1525 Wade Hampton Bl. Greenville, SC
29609)

Martin, D. *Tentmakers in Mission: Put Your
Vocation to Work*. Kent, WA : Mission to
Unreached Peoples.

Parshall, P. *Tentmaking: Crucial Issues for
Today*. Columbia Bible College, 1989.

Peabody, L. *Secular Work is Full-Time Service*.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74.

Price, D.J. *Twentieth Century Tentmakers:
Mission, Mandate, Motivation* Lilydale, Victoria,
Australia: Commodore Press Pty. Ltd, 1991.

Shelly, J.A. *Not Just a Job*.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5.

Siemens, R. *Global Opportunities Compendium*.
Pasadena, CA: Global Opportunities.

Taylor, G. *Trailside Companion: A Guide for
Creative Access Missionaries*. Woodland Park, CO:
Strategic Ventures, 1992.

Tentmakers International. *The Tentmaker's
Resource Guide :A Compendium of Information*.
Seattle, WA: Issachar, 1992.

Turner-Gottschang, K. *China Bound*.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87.

Wharton, J. *Jobs in Japan*. Denver, CO: Global
Press, 1986.

Wilson, J.C., Jr. *Today's Tentmakers: An
Alternative Model for World Evangelization*.
Wheaton, IL: Tyndale, 1979.

Win, D. *International Careers*. Charlotte, VT:
Williamson Publishing, 1986.

선교 계몽

Adeney, M. *God's Foreign Polic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4.

Bryant, D. *In the Gap: What It Means to Be a
World Christian*. Ventura, CA: Regal Press, 1984.

Costas, O.E. *The Church and Its Mission: A
Shattering Critique from the Third World*.
Wheaton, IL: Tyndale, 1974.

Culver, R.D. *A Greater Commission: A Theology for
World Missions*. Chicago, IL: Moody Press, 1984.

Dayton, E.R. (Ed.). *Missions Handbook: North
American Protestant Ministries Overseas*.
Monrovia, CA: MARC, 1976.

Dyrness, W.O. *Let the Earth Rejoice!*
Westchester, IL: Good News, 1983.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Available from:
EMIS, P.O. box 794, Wheaton, IL 60189).

Griffiths, M.C. *What on Earth Are You Doing?*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International Bullertin of Missionary
Research*. (Available from: 6315 Ocean Ave.,
Ventnor, NJ 08406).

Johnstone, P. *Operation World*. Waynesboro, GA: Send the Light Publishers, 1993.

Kane, J.H.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6.

Kane, J.H. *A Concise History of World Mission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8.

Kane, J.H.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1.

Latourette, K.S.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New York, NY: Harper & Row, 1975.

McQuilkin, J.R. *The Great Omiss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4.

Murray, A., & Choy, L. *The Key to the Missionary Problem*.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80.

Neill, S.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Middlesex, England: Penguin Books, 1964.

Nicholls, B., & Kantzer, K. *In Word and Deed: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6.

O'Donnell, K. *Missionary Care: Counting the Cost for World Evangelism*.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2.

Pentecost, E.C. *Issues in Missiolog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2.

Pulse. (Available from: EMIS, P.O. Box 794, Wheaton, IL 60189).

Sine, T. *The Mustard Seed Conspiracy*. Waco, TX: Word, 1981.

Taylor, J.H. *Hudson Taylor's Spiritual Secret*. Chicago, IL: Moody Press, 1982.

Troutman, C. *Everything You Want to Know about the Mission Field but Are Afraid You Won't Learn until You Get Ther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6.

Wagner, C.P. *On the Crest of the Wave: Becoming a World Christian*. Ventura, CA: Regal Books, 1983.

Westing, H.J. (Ed.). *I'd Love to Tell the World: The Challenge of Missions*. Denver, CO: Accent Books, 1977.

Wilson, S., & Aeschliman, G. *The Hidden Half: Discovering the World of Unreached Peoples*. Monrovia, CA: MARC, 1982.

A Winning Combination: ABC/DBC-Cultural Tensions in the Chinese Church. Chinese Christian Mission.

Winter, R.D., & Hawthorne, S.C. (Eds.).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rev. ed.).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2.

Yamamori, T. *God's New Envoys: A Bold Strategy for Penetrating "Closed Countries"*. Portland, OR: Multnomah Press, 1987.

신앙과 세속 일의 통합

Bolles, R.N. *The Three Boxes of Life: And How to Get Out of Them*. Berkeley, CA: Ten Speed Press, 1981.

Bramlett, J. (Ed.). *Finding Work: A Handbook*.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6.

Business Life Digest. (Available from: Christian Business Life, Inc. 8100 Penn Ave. S., Minneapolis, MN 55431).

Campolo, T.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Waco, TX: Word, 1983.

Campolo, T. *You Can Make a Difference.* Waco, TX: Word, 1984.

Christianity at Work. (Available from: Career Impact Ministries, 711 Stadium Dr. E. #200, Arlington, TX 76011).

Danker, W.J. *Profit for the Lord.* Grand Rapids, MI: Eerdmans, 1971.

Diehl, W.E. *Thank God's it's Monday!*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2.

Estes, S., & Estes, V. *Called to Die: The Story of American Linguist Chet Bitterman Slain by Terrorist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6.

Foster, R.J. *Freedom of Simplicity.* New York, NY: Harper & Row, 1981.

Hefley, J., & Hefley, M. *The Church That Takes on Trouble.* Elgin, IL: David C. Cook, 1976.

Holmes, A.E. *Contours of a Christian Worldview.* Grand Rapids, MI: Eerdmans, 1985.

Holmes, A.E., et al. *The Making of a Christian Mind.* Downers Groves, IL: InterVarsity Press, 1984.

InterCristo. *Career Kit.* (Available from: InterCristo, P.O. Box 33487 Seattle, WA 98133).

Kane, J.H. *The Making of a Missionar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75.

Kane, J.H. *Life and Work on the Mission Field.*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1.

Kane, J.H. *Wanted: World Christian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6.

Lutzer, E. *Failure: The Backdoor to Success.* Chicago, IL: Moody Press, 1977.

Lykins, J. *Values in the Market Place: A Biblical Alternative of Doing Business.* Fullerton, CA: R.C. Law & Co, 1991.

Munger, R.B. *My Heart Christ's Hom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54.

Paul, J. *Ethical Issues for Individual Professionals: Corporations Committed to the Great Commission.* Oak Park, IL: Midwest Center for World Mission, 1990.

Peabody, L. *Secular Work is Full-time Service.* Fort Washington, P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74.

Perkins, J.M. *Let Justices Roll Down: Perkins Tells His Own Story.* Ventura, CA: Regal Books, 1976.

Perkins, J.M. *A Quiet Revolution.* Waco, TX: Word, 1976

Scott, W. *Bring Forth Justice.*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Sine, T. *The Mustard Seed Conspiracy.* Waco, TX: Word, 1981.

Sine, T. (Ed.). *The Church in Response to Human Need.* Monrovia, CA: MARC, 1983.

Sproul, R.C. *Stronger Than Steel: The Wayne Alderson Story.* New York, NY: Harper & Row, 1983.

Stott, J.R.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6

Stott, J.R. *Involvement: Vol 1. Being a Responsible Christian in a Non-Christian Society*.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1985.

White, J.E., & White, M.E. *Your Job: Survival or Satisfact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6.

Wilson, J.C., Jr. *Today's Tentmakers: An Alternative Model for World Evangelization*. Wheaton, IL: Tyndale, 1979.

Yonder, R.A.. *Seeking First the Kingdom*.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3.

세계종교와 변증학

Anderson, E. *History and Beliefs of Mormonism*. Grand Rapids, MI: Kregel, 1981.

Anderson, J.N. *The World Religions*. Grand Rapids, MI: Eerdmans, 1976.

Anderson, J.N. *Christianity and World Religion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Budd, J. *Studies on Islam*. (Available from: Red Sea Team, 33/35 The Grove, Finchley, London, England)

Chapman, C. *The Case for Christianity*. Grand Rapids, MI: Eerdmans, 1984

Christian Witness among Muslims. (Available from: Africa Christian Press, 16 Morwell St. London WC1B 3AP. England).

Conn, H. *Eternal Word and Changing Worlds: Theology, anthropology and Mission in Dialogu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4.

Cooper, H. *Reaching the Unreached*.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ress, 1985.

Hanna, M. *The True Path: Seven Muslims Make Their Greatest Discovery*. Colorado Springs, CO: International Doorways, 1975.

Hanna, M. *Crucial Questions in Apologetic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1.

Hopfe, L.M. *Religions of the World*. New York, NY: Macmillan, 1983.

Martin, W.T. *The Kingdom of the Cults*. Minneapolis, MN: Bethany House, 1985.

Matheny, T. *Reaching the Arabs: A Felt Need Approach*.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1.

McCurrey, D.M. *The Gospel and Islam: A Compendium*. Monrovia, CA: MARC, 1979.

McDowell, J.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San Bernardino, CA: Campus Crusade for Christ, 1979.

McDowell, J. *More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San Bernardino, CA: Campus Crusade for Christ, 1981.

McDowell, J. *Handbook on Today's Religions*. San Bernardino, CA: Campus Crusade for Christ, 1983.

McDowell, J., & Gilchrist, J. *The Islam Debate*. San Bernardino, CA: Campus Crusade for Christ, 1982.

McDowell, J., & Stewart, D. *Understanding Non-Christian Religions*. San Bernardino, CA: Here's Life Publishers, 1982.

Montgomery, J.W. *History and Christianity*.

Minneapolis, MN: Bethany House, 1986.

Neill, S. *Christian Faith and Other Faith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Newbigen, L. *Foolishness to the Greeks*. Grand Rapids, MI: Eerdmans, 1986.

Parshall, P. *New Paths in Muslim Evangelism: Evangelical Approaches to Contextualiza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Parshall, P. *Beyond the Mosque*.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5.

Pinnock, C. *Reason Enough: A Case for the Christian Faith*.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0.

Rahman, F. *Isla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Ramm, B. *Varieties of Christian Apologetic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65.

Ramm, B.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9.

Reaching Muslims Today. North Africa Mission.

Rosen, M. *Share the New Life With a Jew*. Chicago, IL: Moody Press, 1976.

A Shorter Encyclopedia of Isla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Sire, J. *The Universe Next Door: A Basic Worldview Catalog*.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6.

Tanner, J. *The Changing World of Mormonism*. Chicago, IL: Moody Press, 1981.

Yamamoto, J.I. *Beyond Buddhism*.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2.

Zwemer, S. *The Muslim Christ*. (Available from: Frontiers, 325 N. Stapley Dr., Mesa, AZ 85203).

지역의 원리들

Aldrich, J.C. *Lifestyle Evangelism: Crossing Traditional Boundaries to Reach the Unbelieving World*. Portland, OR: Multnomah Press, 1983.

Allen, R.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MI: Eerdmans, 1962.

Coleman, R.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Old Tappan, NJ: Fleming H. Revell, 1978.

Conn, H. *Evangelism: Doing Justice and Preaching Grac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2.

Crabb, L. *Inside Out*. Colorado Springs, CO: NaviPress, 1988.

Dayton, E.R. (Ed.). *That Everyone May Hear*. Monrovia, CA: MARC, 1979.

Dayton, E.R., & Fraser, D.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zat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Eims, L.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8.

Engel, J.F., & Nurlen, W.H. *What's Going Wrong with the Harvest?*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5.

Getz, G.A.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Wheaton, IL: Victor Books, 1984.

Glasser, A. *Crucial Dimensions in World*

Evangelizatio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6.

Green, M.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MI: Eerdmans, 1970.

Henrichs, W.A. *Disciples are Made, not Born*. Wheaton, IL: Victor Books, 1974.

Hesselgrave, D.J.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0.

Howard, D.M. (Ed.). *Jesus Christ: Lord of the Universe, Hope of the Worl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4.

Innes, R. *I Hate Witnessing*. Ventura, CA: Regal Books, 1985.

Law, L. *The World at Your Doorstep*.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Little, P. *How to Give Away Your Faith*. Oxnard, CA: Vision House, 1979.

Lum, A. *How to Begin an Evangelistic Bible Stud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1.

Lum, A. *Jesus the Life Changer*.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8.

Lum, A. *A Hitchhiker's Guide to Mission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Lutz, L. *Destined for Royalty: A Brahmin Priest's Search for Truth*.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6.

McGavran, D.A.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The Navigators. *Leader's Guide for Evangelistic Bible Studies: Using the Gospel of John*. Colorado Springs, CO: NaviPress, 1973

The Navigators. *Growing Strong in God's Family*. Colorado Springs, CO: NaviPress, 1978.

The Navigators. *The 2:7 Series*. Colorado Springs, CO: NaviPress, 1978.

Packer, J.I.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61.

Patterson, G. *Church Planting through Obedience Oriented Teaching*.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1.

Petersen, J. *Evangelism as a Lifestyle*. Colorado Springs, CO: NaviPress, 1980.

Pippert, R.M. *Out of the Saltshaker and into the Worl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0.

Sine, T. *Taking Discipleship Seriously*. Valley Forge, PA: Judson, 1985.

Stafford, T. *The Friendship Gap: Reaching out Across Cultur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4.

Trotman, D.E. *Born to Reproduce*. Colorado Springs, CO: NaviPress, 1981.

Verwer, G. *No Turning Back*. Wheaton, IL: Tyndale, 1983.

Wagner, C.P. *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A Biblical Mandate*. New York, NY: Harper & Row, 1981.

Winter, R.D. *Penetrating the Last Frontier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8.

Winter, R.D., & Hawthorne, S.C. (Eds.).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rev. ed.)*.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2.

Yohn, R. *First Hand Joy*. Colorado Springs, CO: NaviPress, 1982.

타문화권에서의 민감성

Austine, C.N. *Cross-cultural Reentry: A Book of Readings*. Abilene, TX: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86.

Beckmann, D.M., et al. (Eds.). *The Overseas List: Opportunities for Living and Working in Developing Countries*. Minneapolis, MN: Augsburg Press, 1985.

Brewster, E.T., & Brewster, E.S. *Bonding and the Missionary Task: Establishing a Sense of Belonging*. Pasadena, CA: Lingua House, 1982. (Available from: SIL Dallas Center Bookstore, 7500 W. Camp Wisdom Road, Dallas, TX 75236).

Condon, J.C., & Youself, F.S. *An Introduction to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ew York, NY: Random House, 1975.

Copeland, L., & Griggs, L. *Going International: How to Make Friends and Deal Effectively in the Global Marketplace*. New York, NY: Random House, 1975.

Goldstein, S.M., & Sears, K.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basic Handbook*. New York, NY: LRIS, 1984.

Greeley, A.M. *Why Can't They Be Like Us? Facts and Fallacies about Ethnic Differences and Group Conflicts in America*. New York, NY: American Jewish Committee, 1980.

Hall, E.T.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NY: Doubleday, 1973.

Hall, E.T. *Beyond Culture*. New York, NY: Doubleday, 1977.

Hess, J.D. *From the Other's Point of View*.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0.

Hesselgrave, D.J. *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4.

Hesselgrave, D.J. *Counseling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4.

Hiebert, P.G. *Cultural Anthropolog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3.

Hiebert, P.G.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6.

Hopler, T. *A World of Difference: Following Christ beyond Your Cultural Wall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1.

International Business Travel and Relocation Directory. (1986). Detroit, MI: Gale Research., 1986

Kohls, L.R. *Survival Kit for Overseas Living*.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1984.

Krafts, C.H. *Christianity in Culture*. Los Angeles, CA: Orbis Books, 1979.

Krafts, C.H.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Knoxville, TN: Abingdon Press, 1983.

Ligenfelter, S.G., & Mayers, M.K. *Ministering Cross-culturally*.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86.

Luzbetak, L.J. *The Church and Cultures: An*

Applied Anthropology for the Religious Worker. Techny, IL: Divine Word Publications, 1970.

Nida, E. *Customs and Cultures: Anthropology for Christian Mission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5.

Nida, E. *Religion Across Culture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9.

Nida, E., & Reybourn, W.D. *Meaning Across Cultures: A Study on Bible Translating*. Los Angeles, CA: Orbis Books, 1981.

Preheim, M.K. *Overseas Service Manual*.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69. (Available from: Institute of Mennonite Studies, 3003 Benham Ave. Elkhart, IN 46514)

Prior, I. (Ed.). *The Christian at Work Overseas*. Teddington, Middlesex, England: Tear Fund, 1980.

Richardson, D. *Peace Child*. Ventura, CA: Regal Books, 1974.

Richardson, D. *Eternity in Their Hearts*. Ventura, CA: Regal Press, 1984.

Seamands, J.T. *Tell It Well: Communicating the Gospel Across Cultures*. Kansas City, KS: Beacon Hill Press, 1981.

Smalley, W.A. (Ed.). *Readings in Missionary Anthropology II*.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78.

Stewart, E.C. *American Cultural Pattern: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icago, IL: Intercultural Press, 1972.

Stott, J.R., & Coote, R.T. *Down to Earth: Studies in Christianity and Cul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Sugden, H.F. *Sharing Jesus in the Two Thirds World*. Grand Rapids, MI: Eerdmans, 1980.

Ward, E.W. *Living Overseas: A Book of Preparations*. New York, NY: Macmillan, 1984.

언어 학습

Blatchford, C. *Directory of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in TESOL and Bilingual Education*. Washington, DC: TESOL, 1982.

Brewster, E.T., & Brewster, E.S. *Bonding and the Missionary Task: Establishing a Sense of Belonging*. Pasadena, CA: Lingua House, 1982. (Available from: SIL Dallas Center Bookstore, 7500 W. Camp Wisdom Road, Dallas, TX 75236)

Brewster, E.T., & Brewster, E.S. (Eds.). *Community is My Language Classroom!* (Available from: Lingua House, 135 N. Oakland, #91, Pasadena, CA 91182)

Burling, R. *Learning a Field Languag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4.

Larson, D.N. *Guidelines for Barefoot Language Learning*. St. Paul, MN: CMS Publishing, 1984.

Larson, D.N., & Smalley, W.A. *Becoming Bilingual: A Guide to Language Learning*.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Rubin, J., & Thompson, I. *How to Be a More Successful Language Learner*. Boston, MA: Heinle & Heinle, 1982.

Stevick, E.W.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1993
by World Evangelical Fellowship

Published by:
William Carey Library
P.O.Box 40129
Pasadena, CA 91114

열방을 향하여
Working Your Way to the Nations

1994년 7월 25일 인쇄
1994년 8월 10일 발행

등록번호 : 제21-196호
등록일 : 1990년 9월 28일
발행인 : 이태웅
번역 : 김동화, 도문갑, 문상철, 민옥식, 백인숙, 이태웅(가나다 순)
발행처 : 도서출판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GMF Press)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13 영동프라자 324호
전화 : 569-0716, 557-2088 팩스 : 563-6950
인쇄처 : 성림문화사 (전화 : 267-6066)
정가 : 6,500원
총판처 : 예영커뮤니케이션
서울 중구 정동 1-23 구세군중앙회관 내
전화 : 722-9577, 722-9572~3 팩스 : 722-9578

© 1994년 (사)한국해외선교회(Global Missionary Fellowship)

이 책의 일부나 전체를 서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녹음, 컴퓨터 입력하는 것을 금함.